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활성화 연구
(개인훈련)

2019년 1월

산 립 청
(진 혜 영)

차 례

국외훈련 개요	3
훈련기관 개요	4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5
제 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1
제 2절 국내·외 정원문화 및 산업 현황	13
제 3절 영국의 정원문화 콘텐츠 및 활용 현황	22
제 4절 Eden project 정원 문화개발 및 활성화	24
제 5절 국내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71
참고문헌	75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 영국
2. 훈련기관명 : 이든 프로젝트 식물원(Eden project)
3. 훈련분야 : 정원문화
4. 훈련기간 : 2018. 7. 13. ~2019. 1. 10.

훈련기관 개요

영국은 정원문화, 정원교육, 정원산업의 메카로 식물원·정원을 토대로 성장한 세계정원 선진국이다. 이 중 Eden Project¹⁾는 BGCI(세계식물원보전연합)의 중요 멤버로써 식물원·정원의 환경적·공익적 기능을 지역과 함께 공유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지역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프로젝트 수행기관에서 필수적으로 방문하는 중요한 벤치마킹 기관이다. 콘월 지방의 고령토 폐광 위에 세워진 세계 최대 정원으로 21세기 영국이 추진한 대표적인 밀레니엄 프로젝트로 명성을 높이고 있는 기관으로 제1철학은 교육이며, 강조하는 또 하나는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로서(근무인력의 95%, 식자재의 82%, 연료의 15%를 지역에서 활용) 지역의 농민들과 친환경상품 개발 등 지역사회와 상생함으로써, 관광객 1,800만 명이 지역에 준 경제적 효과는 9억 파운드(1조 8,000억원)로 콘월주 인구의 2배 가까운 사람들이 방문하는 효과를 도출했다.

명 칭	Eden Project
소 재 지	Bodelva Cornwall PL24 2SG, United Kingdom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edenproject.com
설립목적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자 함
조 직	○ 직 원 : 약 500명 (지역주민 비율 85%) ○ 보유식물 : 약 7,040종 ○ 대표시설 : 열대식물 바이옴, 지중해식물 바이옴, 더 코어 교육센터, 비지터센터, 링크, 아레나 및 야외무대
훈련기관 특성	○ 이든 프로젝트는 BGCI(세계식물원보전연합)의 중요 멤버로써 정원 문화 콘텐츠와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특화된 기관임 - 지구환경, 생물다양성보전, 생태계에 대한 이해증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기관임 - Education charity로 영국 내 영향력이 큰 기관임 ○ 정원문화를 활용한 사회·환경문제 해결에 큰 영향력을 미침 ○ 식물원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연락처	(담당) Dr. Mike Maunder (전화) +44 (0) 1726818825(e-메일)mmaunder@EdenProject.com

1) (Eden Project) 명칭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지속가능성에 의한 발전의 과정이고 완벽한 생태계의 구현이란 목적을 위한 연장성에서의 개념으로 명명되었다.

<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

훈련자	진혜영	직급	임업연구관
소속	산림청 국립수목원 전시교육연구과		
훈련국	영국	훈련기간	2018. 07. 13. ~2019. 01. 10.
훈련기관	이든 프로젝트	훈련구분	국외단기(개인)훈련
훈련목적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활성화 연구	보고서 매수	75매
내용요약	<p>제 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의 정원문화 및 정원 산업은 식물원·수목원을 거점으로 형성되고 확산되고 최근 식물원·수목원·정원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사회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원이 국민 복지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GDP 3만불 진입 이후 정원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정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화를 견인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p>영국의 공동체정원은(Community garden) 지역 내 경작(food desert 문제해결), 환경개선, 이민자 및 노숙자 문제,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회·환경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13년)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증가하고 서울시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와 기관들이 정원박람회와 플라워쇼 등 이벤트 중심의 수적 증대되고 문화콘텐츠의 확장으로서의 기능은 미흡한 실정이다. - 이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원문화와 정원산업 활성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이든 프로젝트의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원문화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정원프로그램 및 교육적 활용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 - 또한,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기반 한 다양한 정원문화 콘텐츠로 가장 잘 알려진 Eden Project의 성공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영국 내 정원문화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내용요약

제 2절 국내·외 정원문화 및 산업 현황

1. 국내 정원 문화 및 산업 현황

- '12년 이후 정원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급등, 법률 개정 등 정부차원의 정원 boom업활동(boom-up)으로 정원 산업화에 대한 기대 상승되고 있다.
- 국내 정원산업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평균 14,771억원, 2025년까지 최대 17,210억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향후 정원 산업의 성장 여부는 국내외 여건변화와 함께 정부 정원 산업화 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국내 대부분의 산업이 식물소재와 소비유통에 치중해 있다.

정원산업 부문	2014년도(억원)	비중(%)
식물소재	12,792	67.8
정원자재 (온에이지, 정원도구, 정원용품)	747	5.8
정원시설, 가구	339	2.7
소비유통	1,709	13.4
교육서비스 정원교육, 인력양성, 정원공공R&D 수목원, 식물원 체험교육	92	0.7
전시문화관광	378	3.0
설계시공	709	5.5
정원관리	142	1.1

정원산업 형태	2014년도(억원)	비중(%)
생산	9,762	76.3
유통	1,709	13.4
서비스	1,321	10.3

* 생산 : 식물소재, 정원자재, 정원시설산업 부분합산
 * 유통 : 소비유통 산업부분 합산
 * 서비스 : 교육서비스, 전시문화관광, 설계시공, 정원관리 부분 합산

2. 국외 정원 문화 및 산업현황

- 세계 정원산업 주요 시장 중 유럽은 77조, 아프리카 74조로 확인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향후 5년간 연평균성장률 5.5%의 73조원 시장 전망하고 있다.
- 정원산업 신흥 아태지역에서는 식물소재 및 원예자재 중심으로(68.9%), 유럽과 미국지역은 정원 시설, 용품, 서비스 중심(47.5%)로 성장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식물 소재 뿐 아니라 관광, 교육, 도시재생 등 문화 콘텐츠가 아시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다.

Year	\$ billion	% Growth
2009	173.4	
2010	178.4	2.9%
2011	184.5	3.4%
2012	187.3	1.5%
2013	191.2	2.1%

전세계 정원시장 현황

Geography	2013	%
Germany	12.8	18.3
France	8.9	12.7
Spain	7.2	10.6
United Kingdom	6.4	9.2
Italy	6.2	8.8
Rest of Europe	28.4	40.7
Total	69.9	100

전세계 지역별 정원시장 현황 (\$ billion)

<그림 1> 세계 정원산업의 현황과 전망

<p>내용요약</p>	<p>제 3절 영국의 정원문화 콘텐츠 및 활용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 정원정책은 정부와 민간이 식물원, 수목원을 중심으로 정원문화 패러다임 변화와 사회·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있는데 국가 정원관광과 정원시상제도 등을 활발히 추진하는 나라가 영국이다. - 영국의 전국정원연합(National Garden Scheme)에 등록된 3,800여개의 정원에 대한 소개와 관람안내를 책자로 발간하며, 개인정원이 문을 열어 50만명 이상이 민간정원을 방문하는 영국의 정원문화를 이끄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 영국관광청은 정원이 잘 조성된 마을 또는 개인주택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정원행사(Britain in Bloom) 추진하여 정원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 가장 유명한 첼시플라워쇼는 영국 내 정원 관련 용품 및 정원관광과 서비스 146억불 소비(정원관광 19억불 수입 발생), 81,946명 RHS 신규 가입, 영국 내 원예와 조경분야에 300,000명 고용창출의 효과를 내고 있다. - 영국 내 가장 인기 있는 관광명소 상위 순위에는 대부분 정원이 포함(관광명소 20위 안에 큐가든 3위, 위슬리가든 11위, 이든 프로젝트 15위, 2016). 영국 국민의 정원방문 비율의 증가는 다른 관광지보다 높은 추세이며, 해외 관광객의 비율도 25%증가했다(Visitor Attraction Trends in England 2014-2016). <p>제 4절 Eden project 정원 문화개발 및 활성화</p> <p>1. Eden Project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이 지역사회를 기반 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공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을 한 선도적인 기관으로 손꼽히는 세계적인 사례이며, 영국 콘월 지방의 고령토 폐광 위에 세워진 세계 최대 정원으로 21세기 대표적인 밀레니엄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 이든 프로젝트의 제1철학은 교육이며, 강조하는 또 하나는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로서(근무인력의 95%, 식자재의 82%, 연료의 15%를 지역에서 활용) 농민들과 친환경상품 개발 등 지역사회와 상생 프로젝트 운영하고 있다.
-------------	--

내용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든 프로젝트의 제1철학은 교육이며, 강조하는 또 하나는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로서(근무인력의 95%, 식자재의 82%, 연료의 15%를 지역에서 활용) 농민들과 친환경상품 개발 등 지역사회와 상생 프로젝트 운영하고 있다. - 관광객 1,800만 명이 지역에 준 경제적 효과는 9억 파운드(1조 8,000억원)로 콘월주 인구의 2배 가까운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p>2. 영국을 이끄는 Eden project의 정원문화 콘텐츠</p> <p>가. 정원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생을 위한 「Primary School 2018-2019」 프로그램은 영국 학교 커리큘럼에 맞추어 EYFS and Key Stage 1(year1~2)/ Key Stage 2(Year 3~6)로 운영된다. - 중학생을 위한 「Secondary School」 프로그램은 Key Stage 3~5까지 운영하면서 과학 등 7과목(과학, 지리학과 지속가능성, 수학, 예술, 여가&여행, 지역방문, 체육활동과 모험)이며, Workshop과 Lab practical등으로 운영한다. - 학교의 커리큘럼과 연구결과를 연계하여 학생, 교사 및 해설가를 위한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모든 수업은 종료 후, 피드백을 받아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 정원교육의 일부가 지역사회에 사회적기여 프로그램으로 활용된다. “DeepRootsFreshSoot”는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영국 식물원네트워크(PalntNetwork)와 결과를 공유하며 발전시키고 있다. <p>나. 리더십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thouse program은 이든 프로젝트의 누적된 창의적인 리더십을 통해 지역 주민, 지역 사회, 지역의 회사가 함께하는 문화적 변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 - Hothouse Consultancy와 Custom Programs으로 구성된다.
------	--

내용요약	<p>다. Eden Community program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정원이 가진 기술과 소통문화를 통해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 지역사회와 연계, 지역에 산재하는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및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를 진행한다. <p>(1) The Big Lunc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지역주민 간 소통을 지원하고자 6월 일요일 하루 점심을 같이하며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튼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행사는 영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2017년에는 9.3백만의 사람들이 빅런치 프로그램에 참가했고,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튼 프로젝트의 Community Camps에 참가하고 있다. <p>(2) The Big Wal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스스로 살고 있는 지역의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커뮤니티가 함께 모여 걸으면서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 프로그램이다. - 참가자들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발전시키며, 지역에 소속감과 애착을 갖게 된다. <p>(3) Community Cam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극적으로 커뮤니티에 힘들 실어 주는 것, 사람들의 행복과 잘 사는 것에 소통기술을 지원한다. - 이튼 프로젝트에서 워크샵(2회/년)이 개최되며, 전국 커뮤니티 네트워크에 소속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가한다. 지역 커뮤니티 형성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스, 지원, 영감, 기금을 제공한다. <p>라. Eden on prescrip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병원과 함께 자연에서 정원활동을 통한 치유기법으로 정신건강의 회복을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우울증, 당뇨, 심혈관질환 등 고통 받는 지역 주민들에게 가드닝과 걷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처방이다. <p>영국은 국민의 우울증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담당부처가 개설되고 병원에서는 Green prescription을 공식적으로 처방하고 있다.</p>
------	--

<p>내용요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lking group(COPD Walking group, Diabetes Walking group), Eden Lunch, Horticultural therapy로 구분된다. - 정신적 문제관련 사회적 처방으로는 Vounder Garden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과정은 원예전문가(Horticulturist)가 프로그램을 주도하며, 주1회 12개월 운영된다. 참가자는 12주 동안 그들의 100%가 웰빙에 대한 증가를 경험했다. - GP surgery는 이것과 관계된 방문이 40%나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St Austell Healthcare의 시범 연구는 12주간 94%의 참가자가 삶의 질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했다. <p> 마. 정원관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든 프로젝트는 영국 관광명소 20개 중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Kew garden, RHS Wisely에 이어 정원으로서는 3번째 순위로 방문객 수는 점진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관광명소로서 정원 방문객은 2000년대 뚜렷한 성장을 시작하며, 2016년도 전체 관광지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 전체 관광사업의 총 세입은 평균 7%정도로 증가율을 보이나, 정원은 9%의 성장률을 나타낸다. <p> 제 5절 국내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문화 콘텐츠의 확장과 활성화를 통한 정원의 새로운 산업기반 구축이 필요하며, 정원문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건강하게 잘사는 것이고, 사회·환경문제 해결과 공익적인 기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p> 가. 국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문화 콘텐츠 개발 및 영역확대</p> <p> 나.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원 정책 수립</p> <p> 다. 과학적이고 전문성 있는 정원교육 및 정원해설 프로그램 개발</p>
-------------	--

제 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연구배경

선진국의 정원문화 및 정원 산업은 식물원·수목원을 거점으로 형성되고 확산되며, 최근 식물원·수목원·정원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사회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정원에 대한 수요는 단순 생산, 취미를 넘어 신체 및 정신 건강과 직결되어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주거 유형은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64.1%(국토연구원, 2013)로, 개인이 정원을 소유하기 힘든 환경이다.

최근 쉽게 접근 가능한 공공 공간을 공동체정원으로 조성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지역공동체 연대감 고취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공동체정원은(Community garden) 지역 내 경작(food desert 문제해결), 환경개선, 이민자 및 노숙자 문제,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회·환경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 필요성

선진국은 GDP 3만불 진입 후 ‘찾아가고’ ‘만드는’ 정원문화가 발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서비스 콘텐츠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정원은 복지 인프라이자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6차 산업 콘텐츠(소재 생산-조성, 관리-문화서비스)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원이 국민 복지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GDP 3만불 진입 이후 정원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정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화²⁾를 견인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13년)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와 기관들이

2) () 전국정원연합에 3,800개 등록 지원, ‘첼시플라워쇼’ 에서 매년 1.3억불 수익 창출
(미국) 공동체정원 활동에 약 8,500만 가구 참여, 가구당 연 450불 지출
(일본) ‘90년 오사카 정원박람회 후 가드닝 붐으로 현재 3,700만명이 정원활동

정원박람회와 플라워쇼 등 이벤트 중심의 기획이 수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문화콘텐츠의 확장으로서의 기능은 미흡한 실정이다.

정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정원 조성과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정원의 콘텐츠를 정보 활용과 문화·교육 등 융합 콘텐츠로 발전시켜서 지속가능한 아이템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미 정원과 정원 유사시설, 박람회 및 플라워 쇼는 지난 몇 년간 지자체별로 정착해서 자리를 잡았지만,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정원의 사회적 기여와 공익적 역할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원문화와 정원산업 활성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이든 프로젝트의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원문화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정원프로그램 및 교육적 활용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고자 한다.

BGCI(세계식물원보전연합)의 중요 멤버로써 식물원·정원의 환경적·공익적 기능을 지역과 함께 공유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국내에 늘어나는 식물원, 수목원, 정원 및 유사기관의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기여와 역할, 일자리창출 등 정원문화 확대에 파생되는 다양한 결과에 대한 시사점과 국내 적용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사례이다.

이든 프로젝트는 정원이 지역사회를 기반 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공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을 한 선도적인 기관으로 손꼽히는 세계적인 사례이며, 영국 콘월 지방의 고품위 폐광 위에 세워진 세계 최대 정원으로 21세기 대표적인 밀레니엄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이든 프로젝트의 제1철학은 교육이며, 강조하는 또 하나는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로서 (근무인력의 95%, 식자재의 82%, 연료의 15%를 지역에서 활용) 농민들과 친환경상품 개발 등 지역사회와 상생 프로젝트 운영하는 것인데, 이든 프로젝트 관광객 1,800만 명이 지역에 준 경제적 효과는 9억 파운드(1조 8,000억원)로 콘월주 인구의 2배 가까운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경영 가치는 '지속가능성'과 '자족성'으로, 조성 당시 투입되었던 약 2,500억원의 예산을 공적 기금 및 유료방문객 45만 명 달성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현재는 외부 보조금 없이 자력으로 운영하는 수준이다.

제 2절 국내·외 정원문화 및 산업 현황

1. 국내 정원 문화 및 산업 현황

'12년 이후 정원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급등, 법률 개정 등 정부차원의 정원 boom-up(붐업)으로 정원 산업화에 대한 기대 상승되고 있다. 국내 정원산업 규모는 2017년 최소 99.6%에서 최대 111.2%까지, 2020년에는 최소 103.2%에서 최대 127.8%까지 성장하며 2025년에는 최소 105.6%에서 최대 134.5%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³⁾된다.

국내 정원산업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평균 14,771억원, 2025년까지 최대 17,210억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향후 정원산업의 성장 여부는 국내외 여건변화와 함께 정부 정원 산업화 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체 정원산업은 8가지 분류로 나누어지며 정원 교육 및 인력양성과 전시관광산업은 전체 정원산업의 약 4%인 560억원의 규모로 정부/지자체와 재단/사설단체에서 주도적으로 관할하고 있다.

정원산업 부문	2014년도(억원)	비중(%)
식물소재	12,792	67.8
정원자재 (원예자재, 정원도구, 정원용품)	747	5.8
정원시설, 가구	339	2.7
소비유통	1,709	13.4
교육서비스 정원교육, 인력양성, 정원공공R&D 수목원, 식물원, 체험교육	92	0.7
전시문화관광	378	3.0
설계시공	709	5.5
정원관리	142	1.1

정원산업 형태	2014년도(억원)	비중(%)
생산	9,762	76.3
유통	1,709	13.4
서비스	1,321	10.3

• 생산 : 식물소재, 정원자재, 정원시설산업 부문합산
 • 유통 : 소비유통 산업부문 합산
 • 서비스 : 교육서비스, 전시문화관광, 설계시공, 정원관리 부문 합산

<그림 1> 국내 정원산업의 현황

3) 정원산업의 전망과 예측을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장단기 발전 정도에 대한 평균값을 수치화 한 후 이를 2014년 현재 값에 대입하여 국내 정원산업 성장에 대해전망

국내 정원 교육·인력양성 산업규모는 21억 원으로 정부/지자체가 9.1억 원(43.3%), 재단/사설단체 6.2억 원(29.5%), 사립식물원 4.0억 원(19.0%), 대학 1.7억 원(8.0%)를 차지한다. 정원교육서비스부분은 2014년 92억 원으로 2025년까지 최대 126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원 교육·인력양성 산업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대학 ¹⁾	식물원/수목원 ²⁾	재단/사설단체 ³⁾	정부/지자체 ⁴⁾	합계
2014년 규모	1.7	4.0	6.2	9.1	21
2014년 비중	8.1%	19.1%	29.5%	43.3%	100%
교육과정	7개	4개	8개	11개	30개
양성인력	156명	740명	470명	1,115명	2,481명

*

- 1) 대학 : 경상대, 삼육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시민대학 및 평생교육연구원 자료(2015)
- 2) 식물원/수목원 : 한택식물원, 에버랜드, 제이드가든 3개소 자료(2015)
- 3) 재단/사설단체 : 경기농림재단(신구대 등), 시민정원사협동조합, (사)푸르네 정원문화센터 3개소 자료(2015)
- 4) 정부/지자체 : 마스터가드너는 도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경기, 제주, 부산, 양주, 안산, 대구, 청주, 김해, 고양, 상주, 광주) 11개소 330명, 서울시, 순천시, 시흥시 시민정원사 785명

<국내 정원 교육 인력양성 산업규모(2014)>

(단위 : 억원)

	대학 ¹⁾	식물원 수목원 ²⁾	재단/사설단체 ³⁾	정부/지자체 ⁴⁾	합계
정원 교육 인력양성	1.7	4.0	6.2	9.1	21

* 출처 : 정원산업 현황 조사와 전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5

- 1) 대학 : 경상대, 삼육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시민대학 및 평생교육연구원 자료(2015)
- 2) 식물원·수목원 : 한택식물원, 에버랜드, 제이드가든 3개소 자료(2015)
- 3) 재단/사설단체 : 경기농림재단(신구대 등), 시민정원사협동조합, (사)푸르네 정원문화센터 3개소 자료(2015)
- 4) 정원도구 : 잔디제초기 56, 관수장치 80, 전정장비 및 도구 23억 원(Euromonitor International, 2014)
- 5) 정부/지자체 : 마스터가드너는 도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경기/제주/부산/양주/안산/대구/청주/김해/고양/상주 /광주) 11개소 330명, 시민정원사 - 서울시/순천시/시흥시 785명 , 시민정원사 - 지자체(서울/순천/시흥)3개소 785명 등

최근 중요한 움직임 중 하나는 정원이 단순히 녹색 인프라로 해석되기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하나의 정원문화로서 자리 잡으려는 것이다. 그것의 시초가 커뮤니티가든(Community Garden)이며, 가드닝 활동을 통해 도시의 사회 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⁴⁾되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 공동체정원은 도시 내에 조성 시 미관상

의 이유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고조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다시 활성화 중이다. 독일은 클라인가르텐은 채소, 과일 등을 생산하는 생산기능, 휴식, 레크레이션을 위한 정원기능, 토지이용 측면의 녹지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생물에게는 서식환경을 제공하는 등 복합기능의 녹색관광자원이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커뮤니티가든(Community Garden) 활동을 통해 도시의 사회 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공동체정원 활동에 약 8,500만 가구 참여, 가구당 연 450불 지출한다. 캐나다는 밴쿠버에 2010년까지 시내에 2,010개의 도시텃밭을 만드는 계획을 가졌었으며, 시작 당시 이미 950개의 텃밭이 조성되고 있다. 일본의 아그리스세이조(Agris Seijo)는 옥상텃밭을 이용한 커뮤니티 가든으로 이미 많은 지역에 조성되어 있으며 규모는 5000㎡로 1구획 당 6㎡로 모두 300개의 구획으로 회원제로 운영한다.

2. 국외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현황

해외 정원문화의 핵심에 있는 콘텐츠 중 하나가 가든쇼와 플라워쇼이다. 영국은 전국 정원연합(National Garden Scheme)에는 3,800개 등록하여 정원관광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은 매년 10개의 가든쇼와 플라워쇼가 지역별로 다른 주제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중 가장 잘 알려진 행사가 첼시 플라워쇼이며, 매년 1.3억불 수익 창출하고 있다. 일본은 '90년 오사카 정원박람회 후 가드닝붐으로 현재 3,700만명이 정원활동을 즐기고 있다.

수목원·식물원등 국가기관의 산림문화, 환경 교육 시스템과 교육 체도를 활용한 다양한 정원 프로그램이 정원문화 콘텐츠로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 분야이다. 미국의 아놀드수목원은 식분야의 전문가 육성을 위해 조정설계 교육 및 3년제의 원예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뉴욕식물원은 700개 이상의 평생교육과정과 아동프로그램, 전문가 교육과정으로 세분화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한다. 일본은 산림공원이나 자연휴양림 등에서 산림 인스트럭터 제도를 도입하여 숲 해설 안내 및 산림치유 건강 프로그램을 활성화 중이다.

4) 삶 시리즈: 커뮤니티 가든(Community Garden), 크리스천라이프, 2011

유럽을 비롯한 미국 등 해외 선진 국가들은 정원관련 콘텐츠를 대중매체, 서적 등에 이용 중인데, 영국은 자연식 정원, 디자인 정원 등 여가와 교양을 위한 공간디자인이 주목을 받아 이에 따른 정원가꾸기가 인기이며, BBC의 Gardeners' World는 제작진이 가드닝 전문가와 함께 정원을 찾아가 정원을 리모델링 해주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마사 스튜어트'는 미국 주부들을 대상으로 정원가꾸기를 주 내용으로 구성한 TV프로그램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 역시, '하우스텐보스 정원가꾸기 월드컵'은 세계 각국의 유명 정원디자이너가 모여 평화와 재생을 테마로 경쟁하는 공모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원은 식물을 가꾸는 취미와 산업을 넘어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선진국은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낙후되고 소외된 도시를 정원박람회를 통해 기능과 다양성을 확보하여 변화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의 정원박람회이다. 장기적인 정원문화 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폐기된 땅을 재생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환경·관광 명소로 경제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의 정원박람회는 개최순서와 위계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되며, 도시계획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분데스가르텐샤우(Bundesgartenschau, BUGA) 연방정부 주관, 2년에 한번씩 홀수해에 개최하고, 란데스가르텐샤우(Landesgartenschau, LAGA) 주정부 주관, 2년에 한번씩 짝수해에 개최된다. 인터나치온날레 가르텐바우(Internationale Gartenbau, IGA) 연방정부 주최, 10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국제 행사이다.

독일 주 정원박람회(LAGA)는 중공업 단지의 성장과 쇠퇴를 극복하기 위해 1984년부터 27년 동안 15개 지역을 선정하여 정원박람회 개최한 것으로 오염된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고, 시 전체가 녹지 문화 장소로 변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증진. 관광객 증가로 경제적 소득 증가,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그린 U

프로젝트의 경우, 5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개최된 5차례의 내셔널 가든쇼(Reichsgartenschau, 1939, 1950, 1961, 1977, 1993년)를 통해 각 공원들이 조성,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U자 모양의 녹지지대가 형성되었다.

이를 통해 독일 공업도시 슈투트가르트의 오래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알려져있다. 가든쇼를 진행하며 크고 작은 공원들을 조성 연결하였고, 도시에 바람이 지나갈 수 있는 바람길과 녹색 허파를 만드는 친환경적인 방법의 '그린 U' 프로젝트가 진행하였다.



<그림 2> 사진의 어두운 초록색 부분은 그린U지역 중 1993년 가든쇼가 개최된 장소(왼쪽)

출처: Stadtklima Stuttgart

프랑스 쇼몽박람회의 경우, 탈 지방화로 지방의 중·소도시가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여, 지방 소도시 쇼몽에 국제정원박람회 개최하였는데 1992년부터 진행하여 세계의 주목받는 정원 문화의 도시로 탈바꿈한 사례이다. 1992년 45,000명의 방문객에서 2011년 357,952명으로 지속적으로 방문객수 증가하고 있다.

일본 오사카에서는 1990년에 개최된 일본 오사카 정원박람회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도시의 녹색 공간 확보 및 친환경적인 문화생산 장소로서 도시개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캐나다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정원관광네트워크(International Garden Tourism Network)는 정원을 주요한 관광자원으로 접근하고 연구, 정기적인 컨퍼런스를 통해 녹색관광의 국제단체 활동 활성화, 정원을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에 대한 인식 제고, 정원관광의 품질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원 문화는 관광콘텐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2017 TOP 10 NORTH AMERICAN GARDENS WORTH TRAVELLING FOR
(in alphabetical order)

1. **Chicago Botanic Garden**, Chicago, Illinois
2. **Dr. Sun Yat-Sen Classical Chinese Garden**, Vancouver, British Columbia
3. **Ethnobotanical Garden**, Oaxaca, Mexico
4. **Halifax Public Gardens**, Halifax, Nova Scotia
5. **Hershey Gardens**, Hershey, Pennsylvania
6. **Jardins de Métis / Reford Gardens**, Grand-Métis, Québec
7. **Las Pozas**, Xilitla, Mexico
8. **Longue Vue House and Gardens**, New Orleans, Louisiana
9. **San Diego Botanic Garden**, Encinitas, California
10. **Tucson Botanical Gardens**, Tucson, Arizona

<그림 3> 북미지역 여행해 볼만한 정원 10선

세계 정원산업 주요 시장 중 유럽은 77조, 아프리카 74조로 확인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향후 5년간 연평균성장률 5.5%의 73조원 시장 전망하고 있다. 정원산업 신흥 아태지역에서는 식물소재 및 원예자재 중심으로(68.9%), 유럽과 미국지역은 정원 시설, 용품, 서비스 중심(47.5%)로 성장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시아 시장 중 중국의 정원시장 규모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정원 시장규모는 아시아 정원시장의 5.2%에 해당한다.

Year	\$ billion	% Growth
2009	173.4	
2010	178.4	2.9%
2011	184.5	3.4%
2012	187.3	1.5%
2013	191.2	2.1%

전세계 정원시장 현황

Geography	2013	%
Europe	69.9	36.5
Americas	67.1	35.1
Asia-Pacific	51.3	26.8
Middle East & Africa	2.9	1.5
Total	191.2	100

전세계 지역별 정원시장 현황 (\$ billion)

Geography	2013	%
Germany	12.8	18.3
France	8.9	12.7
Spain	7.2	10.6
United Kingdom	6.4	9.2
Italy	6.2	8.8
Rest of Europe	28.4	40.7
Total	69.9	100

Year	\$ billion	% Growth	Year	\$ billion	% Growth	Geography	2013	%
2009	42.0		2014	54.1	5.5%	China	23.4	45.6
2010	44.8	6.5%	2015	56.7	4.8%	Japan	11.7	22.9
2011	48.0	7.3%	2016	59.8	5.5%	India	4.3	8.5
2012	48.6	1.1%	2017	62.9	5.2%	South Korea	2.7	5.2
2013	51.3	5.6%	2018	66.5	5.7%	Rest of Asia Pacific	9.2	17.8
						Total	51.3	100

아시아 정원시장 현황 아시아 정원시장 전망 아시아 정원시장 현황 (\$ billion)

<그림 4> 세계 정원산업의 현황과 전망

3. 정원관련 법적, 제도적 현황

선진국별로 법령에 “정원”을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정원관련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정원 산업관련법으로 Community Gardening and Nutrition Act(2014)가 존재하며, 주별로 유사 법령에 정원에 관한 사항 포함되어 있다.

영국은 주택법, 지역개발법, 도시계획법 등에 Garden 규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정원 및 수목원에 대한 법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박물관 법에서 자연사박물관, 고고박물관, 미술관,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산림청은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수목원·정원법 개정으로 정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15.07.21). 반영된 내용으로는 정원 인프라 구축, 정원문화·교육 확산 및 관광 자원화, 정원산업 기반 구축 및 시장 활성화, 한국정원의 세계화, 연구개발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정원법령 개정 등이다. 또한, 정원 활성화와 정원산업 육성을 위해 제1차 정원진흥 기본계획(2016~2020년)에서 정원 기반조성, 문화확산, 산업화 활동 등에 관한 최상위 추진 전략 발표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정원정책 1000일 플랜, 10대 과제('17년 9월)를 통해 체감형 정원정책의 실천하고 있다.

최근 정원인프라 증가에 따른 국가주도 정원정책의 선택과 집중, 지원 필요하지만,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원정책 수립 및 개발을 전략 역시 시급한 실정이다. 소모적인 단발적인 행사로서 산업화되기 보다는 지속가능한 문화로서 정원인프라와 프로그램이 정착하는 것이 정원문화의 효용가치와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해외사례에서 확인되고 있다.

『국민이 행복한 정원정책』 1000일 플랜 , 10대 과제 기본방향 발표
(산림청, '17. 9. 25)

인프라 확충

정원을 생활권의 가족단위 휴식공간으로 조성

- 국가·지방정원을 확충하여 권역별 거점 정원으로 선도적 역할 수행
- 시민·기업참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공동체·민간정원 조성·등록 확대
- 숲을 생태와 정원이 어우러진 「숲정원」으로 재생하여 정원관광 활성화

정원문화 확산

시민들이 '찾아가고', '만드는' 정원문화를 확산시켜 국민 일상생활속에 정원'봄'을 형성

- 정원을 생활과 예술, 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활용
- 정원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적 관심 제고와 지지층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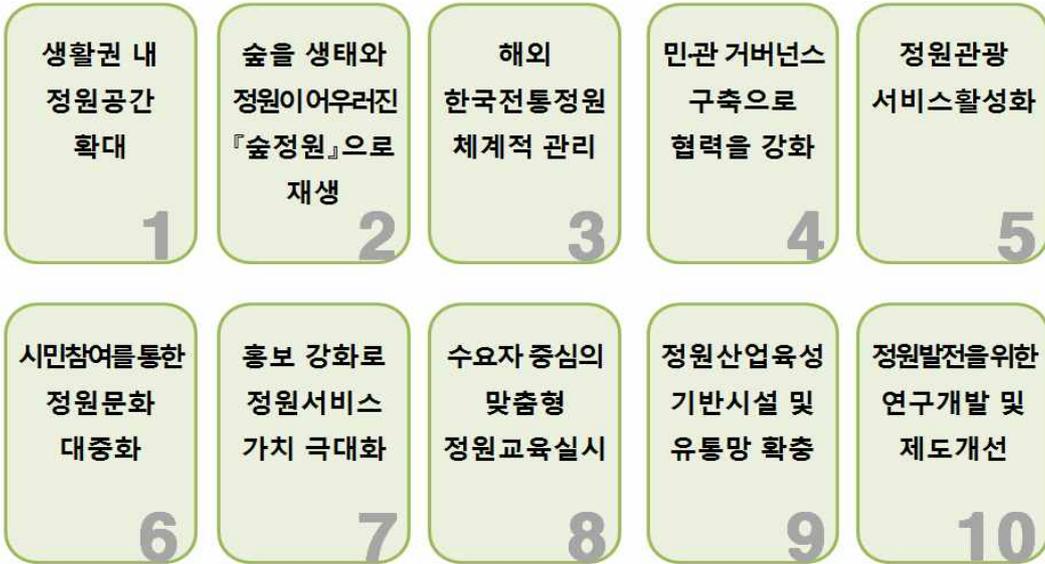
정원산업

정원을 산림분야의 신산업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시장으로 확대 지원

- 창업 지원 및 컨설팅, 유통 및 판매시스템 구축으로 민간시장을 육성
- 정원문화와 산업을 연계한 행사를 개최하고, 정원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정원 인프라 확충 및 문화 확산,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1,514개 창출



<그림 5> 산림청 정원정책 10대 과제

4. 시사점의 도출

선진국을 비롯한 국내 정원문화 및 정원 산업은 긍정적인 증가 추세로 예측되며, 그 동안 인프라와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양성 및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절차도 법개정과 더불어 마련되었다.

현재까지 국내 정원문화는 정원공모전 형태로 매년 증가하여 7개정도의 플라워쇼나 가든박람회가 지자체 별로 진행 중이며, 그것의 차별화된 콘텐츠 구성과 사후 활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 사례의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문화 콘텐츠로 정원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규모에 상관없이 정원과 정원활동을 통한 건강 및 사회적 문제해결, 사회 공익적 역할과 기여에 대한 서비스 활동을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따라서, 국가정원 정책은 국립수목원, 국가정원 등을 중심으로 지방과 민간 정원, 식물원, 수목원과 차별화된 정책 및 전략수립이 필요하며, 직·간접적인 지원 위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정원을 만들고 운영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지지를 기반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콘텐츠만이 정원문화의 정착과 지속성을 도출해 낼 수 있으며, 산업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절 영국의 정원문화 콘텐츠 및 활용 현황

1. 영국의 정원문화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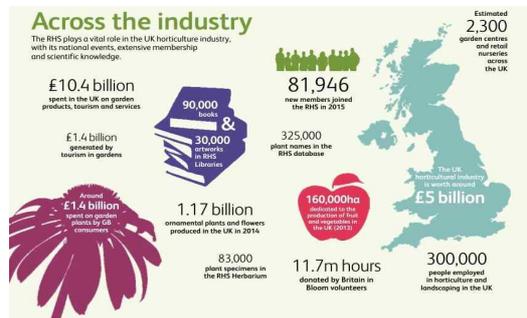
유럽의 정원정책은 정부와 민간이 식물원, 수목원을 중심으로 정원문화 패러다임 변화와 사회·경제발전을 선도⁵⁾하고 있는데 국가 정원관광과 정원시상제도 등을 활발히 추진하는 나라가 영국이다.

영국의 전국정원연합(National Garden Scheme)에 등록된 3,800여개의 정원에 대한 소개와 관람안내를 책자로 발간하여 정원관광 기반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국과 웨일즈에서 개인의 주택정원을 개방하는 단체로 각각의 개인정원이 문을 열어 50만명 이상이 민간정원을 방문하는 취미이자 문화행사이다. NGS의 정원개방은 정원마니아와 정원사들의 소통공간으로 정보공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영국의 정원문화를 이끄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영국관광청은 정원이 잘 조성된 마을 또는 개인주택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정원행사(Britain in Bloom) 추진하여 정원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가장 유명한 첼시플라워쇼는 영국 내 원예 및 정원 산업 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정원 관련 용품 및 정원관광과 서비스 146억불 소비(정원관광 19억불 수입 발생), 81,946명 RHS 신규 가입, 영국 내 원예와 조경분야에 300,000명 고용창출의 효과를 내고 있다.



<그림 6> NGS와 홈페이지



<그림 7> 영국 정원산업의 경제적 효과

5) 확산을 위한 국가정원 진흥방안 연구, 산림청, 2014

지금까지의 정원은 인프라구축과 단발성 공모행사, 더 나아가서는 도시 재생과 도시계획과 관련 되어 왔다. 정원이 문화 콘텐츠로 자리잡고 그것이 기존의 유사 인프라와 소재 산업과 연계되는 가운데 정원을 통한 사회, 문화적 문제 해결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정원관광과 정원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관광수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정원은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의 인프라로 정착하고 있는데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가 관광분야이다.

영국 내 가장 인기 있는 관광명소 상위 순위에는 대부분 정원이 포함 (관광명소 20위 안에 큐가든 3위, 위슬리가든 11위, 이든 프로젝트 15위). 영국 국민의 정원방문 비율의 증가는 다른 관광지보다 높은 추세이며, 해외 관광객의 비율도 25%증가하는 추세(Vistor Attraction Trends in England 2014-2016).

Rank	Name of Attraction	Category	2015 Visitors	2016 Visitors	% Change 15-16	Charge for Admission
1	Tower of London	Historic Properties	2785249	2741126	-1.6%	£22.50
2	Chester Zoo	Wildlife	1516808	1898059	25.1%	£24.00
3	Royal Botanic Gardens, Kew Gardens	Gardens	1622821	1828956	12.7%	£16.50
4	Flamingo Land Theme Park and Zoo	Leisure / Theme Parks	1470828	1610556	9.5%	£37.00
5	Windermere Lake Cruises, Bowness	Historic Properties	1482899	1557423	5.0%	£8.00
6	St Paul's Cathedral	Places of Worship	1609325	1519018	-5.6%	£18.00
7	Stonehenge	Historic Properties	1366765	1381855	1.1%	£16.50
8	Royal Academy of Arts	Museums & Art Galleries	1096608	1285595	17.2%	£16.00
9	ZSL London Zoo	Wildlife	1214846	1211279	-0.3%	£25.50
10	Westminster Abbey	Places of Worship	1664850	1202000	-27.8%	£20.00
11	RHS Garden Wisley	Gardens	1087927	1135976	4.4%	£13.00
12	Roman Baths	Museums & Art Galleries	1044802	1093856	4.7%	£15.50
13	Drayton Manor Theme Park	Leisure / Theme Parks	1210141	1054102	-12.9%	£39.00
14	Colchester Zoo	Wildlife	964050	1017023	5.5%	£22.49
15	Eden Project	Gardens	960029	1000363	4.2%	£25.00
16	Pleasure Beach	Leisure / Theme Parks	1000000	1000000	0.0%	£21.00
17	Houses of Parliament	Historic Properties	928855	990014	6.6%	DK
18	Shakespeare's Globe	Historic Properties	DK	938432	N/A	DK
19	Canterbury Cathedral	Places of Worship	957355	903319	-5.6%	£12.00
20	Hampton Court Palace	Historic Properties	598851	903270	50.8%	£19.00

<그림 8> 영국 관광지 순위(2016)

제 4절 Eden project 정원 문화개발 및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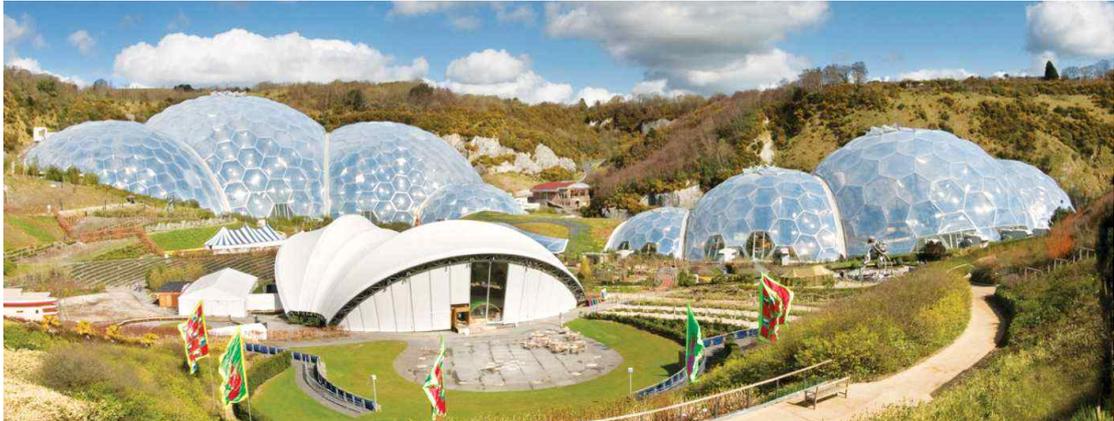
1. 조성배경

영국남서부 잉글랜드 지역인 콘월(Cornwall)에 위치하고 있으며, GDP가 영국 평균의 62%에 불과하여 유럽연합으로부터 빈곤관련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하는 영국의 4개 지역 중의 하나이며,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2%에 달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콘월지역의 경제적인 문제는 로마시대 이후 이 지역의 주산업이었던 광물자원의 채굴과 수산업의 쇠퇴가 주된 원인⁶⁾이다. 고령토 채굴산업이 사양기에 접어들면서 채굴광산은 문을 닫게 되고 폐기물이 방치되면서, 광산 복원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노천채굴 이후의 지형복원, 용출되는 지하수에 의한 오염 등 심각한 문제 직면하면서 환경복원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특히, 광업을 기반으로 하던 인근 지역들은 광업의 쇠퇴와 인구 노령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빈곤지역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지역들은 영국의 중심지역으로부터 거리가 멀고 다른 산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민관 협동 사업 및 민간차원의 관광개발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했고, 그 시작은 헬리간 정원(The lost garden of Heligan)복원 사업이다. 헬리간 정원은 빅토리아 여왕시기에 이 지역의 명문가인 트레마인 가문의 귀족들이 조성한 가족정원으로 지역의 온화한 기후 특성을 반영하여 열대와 지중해성 식물을 심어 만든 야외정원으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폐허가 된 정원은 1992년 민간 자원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열대 및 지중해성 식물 중심의 정원으로 복원되었고 지금은 연간 24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

6) 자연자원의 큰비중을 차지하던 것이 고령토였는데 광범위하게 분포했던 고령토는 중국점토(China clay)라고 불리었음. 세인트오스텔(St. Austell)을 중심으로 고령토 채굴이 이루어졌으며 18세기 이후 지역산업의 핵심이 되었다. 1746년 이래 140억 파운드의 고령토 채굴이 이루어 졌으며 이것은 도자기 원료와 제지산업의 코팅용 충전재로 사용되었음.



<그림 9> 이든 프로젝트 전경

헬리건 정원 복원사업⁷⁾은 사업자체의 성공도 의미가 있지만 이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했다는 점과 19세기 말의 농업과 경관을 유지하면서 지역농산물과 관광자원을 연계시켰다는 새로운 비전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김종연, 2012).

남서부의 온난한 기후환경은 해양스포츠와 레저중심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특정한 계절에만 집중되었으며, 지역주민보다 관광업 종사자들만 참여하였기 때문에 지역 고용창출의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헬리건 정원 복원사업을 이끈 팀 스미트(Tim Smidt)는 규모가 크고 보다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환경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세인트오스텔(St. Austell)주변의 고령토 폐관에 주목하였고, 가장 큰 규모의 폐광(22ha)이 바로 보델바(Bodelva)의 이든프로젝트(Eden Project) 부지이다.(15ha). 개장 이래 투입된 전체 자본비용은 약 132.4백파운드로 공공부분, 밀레니엄 위원회, 상업대출과 기부들로 형성되었고 현재 운영은 Eden Trust Group이 맡고 있다. 매장과 레스토랑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어서 수입창출에 중요한 수입이 되고 있다.

7) 정원의 경우, 방문자들에게 판매하는 음식의 원산지를 인근지역이나 정원내의 밭으로 제한하는 등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으나, 야외 정원인 관계로 이 역시도 관광객 집중시기가 제한적이어서 지역발전의 효과는 제한적임(The Lost Garden of Heligan, 2006).



<그림 10> The Lost Gardens of Heligan



<그림 11> Heligan garden의 발견과 복원

* 사진 출처 : <https://www.heligan.com>

2. 조성과정

이든 프로젝트는 식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이 시설물은 3단계에 걸쳐 개방되었는데 1단계는 기초공사에서 주 전시온실인 바이옴(Biome)이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까지이며, 이때 전체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방문자센터를 만들어 구조물의 건설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기간 동안 45만 명의 방문자가 공사현장을 방문하였고(Eden project, 2006). 2단계는 열대바이옴(Rainforest Biome, 1,55ha)과 지중해바이옴(Mediterranean Biome, 0.65ha)의 전시시설이 공개되었다. 열대바이옴은 높이 55m, 길이 240m의 규모이고, 지중해바이옴은 높이 35m, 길이 135m규모를 갖추고 있다.

3. 시설의 특징

인공토양에 지역의 지하수와 빗물을 식물의 성장 조건에 맞게 공급하고 관리하고 있다. 두 개의 바이옴은 광산폐기물과 유기물의 혼합발효를 통하여 85,000ton의 인공토양으로 만들어졌고, 모두 5종류의 토양이 채워진 상태이며, 각 식물의 토성에 맞게 관리되고 있다.

식물 생육에 필요한 물 공급은 지하수와 빗물을 이용하며, 2개의 바이옴과 코어는 빗물의 집수를 위해 외형 디자인을 고려했다. 식물의 특성상 식물의 잎 표면에 광물집적을 막기 위하여 빗물과 지하수를 정수하여 활용하고 있다. 두 개의 바이옴은 자외선 통과가 가능한 경질필름(Ethylene Tetrafluoroethylene, ETFE)이 외피로 사용되었고, 25년의 내구연한이 보증되며 현재 20년 정도를 사용된 상태이다. 먼지 등의 오염은 자정 정화되는 재질로 유리보다 구조적으로 안전하고(유리의 경우, 온도가 높아지면 구조물의 안정성 문제가 발생) 시설관리팀에서 조류로 인한 오염, 이끼 등 오염이 있을 경우, 청소를 하고 있는 중이다.

열대우림은 실제 열대우림의 자연환경, 생태체계, 식생 및 지역문화를 현장에 가지 않아도 기후대를 충분히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전시원과 스토리텔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물 하나의 중요성과 정보를 설명하는 식물원과는 달리 해당 식생대에서 자연환경과 관련된 인간생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의 문제, 열대림 파괴와 과도한 생산과 이윤분배를 설명하는 사회, 경제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자체적으로 이든 카페, 이든키친 등 7개의 샵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든 프로젝트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념품은 지역 생산품이나 자원 재활용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식당 등에서 판매되는 각종 식음료들은 지역의 농산물(local food)과 이든 증식원에서 생산된 재료들이다. 특히, 이든 키친에서는 콘월지역에서 생산하는 소고기, 유제품, 계란 등으로 전체 식재료 구입 예산의 89%를 지역식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공정무역상품과 천연재료를 재료로 한 상품을 이용하고 판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하고 지원하고 있다.(Eden project, 2017)



<그림 12> 열대우림 바이옴 전경



<그림 13> 지중해 바이옴 전경

이든 프로젝트는 교육 채리티(Education charity)에 속해있으며, 교육의 핵심은 The core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 교육 프로그램과 Learning of Eden Project의 학교 연계 학위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환경교육 전용시설인 더 코어(3,000m², 2006년 개관)는 아이들에게 환경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교육센터에는 Invisible이라는 특별 전시회⁸⁾가 진행 중이며, 보이지 않는 식물과 식물 주변의 미세한 환경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멀티미디어와 예술작품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4. 설립목표

이든 프로젝트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살아있는 세계를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8) Invisible 이전에는 The plant Engine이라는 주제를 통해 식물의 광합성으로 인하여 생산되는 산소가 인간과 다른 유기물에 미치는 영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주제를 선보였으며, 광합성 작용을 통해 산소와 제거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 주변 전시공간에 배치된 인형과 전시물이 움직이는 것인데 이러한 시설물은 공기정화 기능을 통해 연간 3조 5천억 파운드 상당의 이익을 주는 것을 설명하는 전시가 진행되었다.

5. Eden project 조직과 업무

가. 조직구성

CEO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생명과학부가 신설되면서 연구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 크게 Eden project Ltd.과 Eden Project International Ltd.업무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으며, 총 8개부서로 CEO(Gordon Seabright) 아래 8명의 Director가 부서를 책임지고 운영하는데 이중 보드 디렉터는 3명이다.

Outreach & Development는 이든커뮤니티(Eden Community)의 운영, 이든 프로젝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School과 preschool을 위한 Education 프로그램의 운영 및 해외에 교육프로그램을 런칭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Life Sciences는 연구, 전시를 전담하는 부서로 살아있는 세계 즉, 식물 및 자연과 관계된 업무를 진행한다. 생명과학이라는 아젠다는 이든 프로젝트를 교육벤처로 성장하게 하고 학위레벨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Interpretation부서는 이든 프로젝트의 설립의도를 더 많은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고 시도하고 있는 곳으로 특히, 예술, 방송, 출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거리가 흥미로울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Strategic Marketing부서는 생방송 프로그램 및 대중매체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며 현지 방문객 뿐 아니라 디지털 방문객에 이르기까지 이든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을 찾는 다양한 업무를 진행한다.

Operation 부서는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며, 방문객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책임지고 있으며, Eden Stay와 앞으로 조성될 호텔에 대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Finance 팀은 ICT를 포함한 보안팀으로 위험관리, 정보보호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Human Resources부서는 자원봉사자, 직원훈련과 개발업무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직원들이 업무를 즐길 수 있도록 역량개발을 수행한다.

Philanthropy는 새로 조직된 부서로 자금 확보를 주 업무로 하며, 이든 프로젝트의 새로운 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투자 계획을 진행한다.

이든 프로젝트는 식물원의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만, 콘월 내셔널트러스트와 The lost garden of Helligan, 바다 등 지역의 환경, 문화, 역사자원이 연계된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생명 과학부를 새롭게 론칭하면서 식물보존 연구를 통한 연구기관으로서 더 중요한 의미를 찾고 있다.

나. Eden project의 구성

이든 프로젝트는 BGCI(Botanic Garden Congress International)의 멤버로서 지역의 자생식물 보존과 해외식물자원 수집 및 보전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연구하고 관람객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시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식물에 대한 정보보다는 식물을 소재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강조하고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중과 공유하고 서비스하는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기존 식물원과는 차별화된 요소가 있다. 특히,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목적과 부합되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이든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개의 실내 바이옴과 실외 전시원으로 나뉜다.

(1) Rainforest Biome

초기 열대우림 바이옴(Rainforst Biome)은 Rain forest로 출발하였으나 생물다양성 및 기후변화 이슈에 적합한 Biome의 이름으로 한차례 바뀐 바 있다. 전시원은 식물을 보여주는 공간의 역할보다는 열대지역에 살고 있는 인간, 열대자연 환경과 열대식물과의 관계, 열대환경과 인간과의 상호 연계성 등을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열대우림과 유사한 환경으로 열대 섬, 동남아시아, 서 아프리카 및 열대 남아메리카에서 열대 우림 환경을 체험할 수 있으며, 열대 특유의 큰키 나무들과 과실수, 유용자원으로 만들어진 경관은 실제 열대에 와 있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아프리카, 열대해양지역, 열대 남아시아 지역에서 인간에게 유용하게 이용되는 식물과 타 지역과 교역이 이루어지는 식물을 소개하며, 열대 지역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재현을 위해 특징적인 건축(카메론 전통주택, 말레이시아의 전통주택, 남아메리카 열대지

역의 주택)을 경관요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들 가옥은 텃밭과 함께 조성되어 지역의 환경에 적합한 작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14> 열대우림 내부 전경



<그림 15> 열대수련과 정글



<그림 16> 야생 고무나무와 활용법



<그림 17> 말레이시아 하우스



<그림 18> 트리탑 캐노피



<그림 19> 바나나와 콘베이어 벨트

지역 특유의 식물의 재배, 전통적 활용과 현대적 상품화에 이르기까지의 전시원을 둘러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성과 환경보존에 중점을 두는 전시와 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열대자원의 경우, 열대우림의 파괴, 다양성의 훼손과 같은 내용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람객의 참여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열대 상업자원으로 활용되는, 유용식물이라 불리는 고무나무, 커피, 팜야자나무, 바나나, 사탕수수를 소재로 하고 있다.

타이어의 주요 원료인 고무나무의 경우, 재료로서의 고무나무의 채취 방법이나 이용에 대한 전시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해설과 체험이 추가되어 각광받고 있다.

(2) Mediterranean Biome

조성초기에는 Temperate Biome으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열대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지중해, 남아프리카, 캘리포니아 등에서 서식하고 있는 나무와 식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원의 주요 주제는 향과 색에 주목한 식물선정으로 다채로운 경관을 연출하는 것이며, 약이나 의학을 테마로 한 약초나 민간요법을 소개하고 있다. 중앙무대를 중심으로 작물과 품종,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지중해 및 아열대 식물 컬렉션과 시즌별 상설전시가 이루어진다.



<그림 20> 지중해관 내 특별전시



<그림 21> 지중해 호주컬렉션



<그림 22> 지중해관 겨울 전시

식물전시는 가지, 고추, 올리브 등 주변에서 쉽게 보는 식물을 세계 각 나라의 품종을 중심으로 비교, 관찰하고, 그것의 쓰임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 그룹투어의 자연과학, 예술 등의 교육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중앙광장에서는 나레이터 팀의 스토리텔링 무대가 2회/일 운영되고 있고, 계절별 방학 중인 아이들과 유아동반 가족단위 고객이 중심이다.

(3) Outdoor garden

이든 프로젝트의 전시원은 식물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수집원 개념의 공간이 아니다. 모든 공간은 가변성 있는 주제와 공간으로 5년에 한 번씩 장기계획을 수립한다. 2018~2022년까지 5개년 전시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각 담당자들과 계획내용과 준공시점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통해 5년간의 사업⁹⁾을 확정한다. 전시원내 계획된 전시이벤트는 원예전문가, 연구팀, 홍보 및 해설팀이 만나서 의사결정을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 이 논의를 통해 업무내용에 대한 자문, 협업, 시기조정 및 예산확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확정한다.



<그림 23> Avenue of Sense



<그림 24> 채소정원



<그림 25> 다알리아 컬렉션



<그림 26> 식충식물원

9) 국립수목원장과 Eden project 학술부장이 만나 진행사항 점검(18. 10. 25.)정원은 올해 착수하여 기본계획 수립, 식물종 선정 및 도입계획 및 부지정지 완료



<그림 27> 폴리네이터 가든



<그림 28> Wild Cornwall

전시원의 계절별 이벤트(마라톤, 할로윈, 크리스마스 등)는 홍보팀과 원예팀이 1년 전에 계획을 수립하며, 해설 및 안내 팀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식물에 대한 정보 전달보다는 이것을 스토리텔링으로 일반인, 수요계층별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전시원 조성계획은 한 번 만든 전시원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일반적인 접근이 아니라 가변적으로 조성되고 이동하고 사라지는 형태를 지닌다.

식물을 보존한다는 개념보다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작물과 인스턴트 형태로 출시되는 제품의 원래 식물을 보여주는 실용적인 전시교육 공간으로 이해하고 예술작품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곳으로 인식한다.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이야기로 풀어내거나 다양한 해설판을 통해 쉽고 간결하게 전시원 조성의도를 전하고 있다.



<그림 29> 한국정원 토크쇼



<그림 30> 한국정원 기본계획 논의



<그림 31> 한국정원 부지

동시에 전시원은 예술과 문화가 내재된 공간으로 디테일이 있고 설치된 모든 작품에는 의미와 이야기가 있어서 아름다운 장소로 이해되도록 아티스트와의 작업을 중요시 한다. 이것은 식물, 그림, 음악, 조각 작품 등 다양한 형태로 전시원에 반영되어 있다.



<그림 32> 전시원과 조형물



<그림 33> 지중해 전시원 조형물



<그림 34> 이브 조형물



<그림 35> 기후와 오염 해설시설물

보이지 않는 세상(Invisible World)는 음식을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박테리아 또는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미생물 등 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는 우리 몸 안팎의 박테리아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현상을 주제로 The core 교육관 일층에 전시중이다. 과학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와 함께 진화 한 이러한 유기체가 체중에서 기분, 자폐증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것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발견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미디어, 예술작품과 연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준다.

과학자들과 예술가 들이 공동 작업을 하면서 DNA 기반의 사운드 조각에서 박테리아의 패턴을 탐구하는 조각 및 식물, 박테리아를 묘사하는 일련의 인물들에 이르기까지 예술품, 설치물 및 상호 작용하는 조각의

놀라운 컬렉션을 만들었다. 특별 전시회는 임신과 대변에서부터 현미경으로 장과 항생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예술작품과 과학적 지식을 포함하여 보여주고 있고, 전시회를 보고나며, 자신의 몸을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년 내내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한 해 전에 기획되며, 흥미로운 스토리텔링과 퍼포먼스가 연출된다.



<그림 36> 시아노 박테리아 조형물



<그림 37> Invisible world 특별전시회



<그림 38> Expedition Space



<그림 39> Halloweenen



<그림 40> Father's Christmas



<그림 41> Ice Skate

다. Eden Project International

이든 인터내셔널은 이든 프로젝트 트러스트의 한 파트로 설립되었으며 세계적으로 이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만들어졌다. 이든 프로젝트는 뜻을 같이 하는 전 세계의 조직, 회사, 커뮤니티 및 연구소와 이든과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총 35명의 직업이 부서에 근무하고 있으며, 2001년 중국을 시작으로 현재 18개 나라와 해외사업을, 영국 내에는 3개 후보 지역에 2개의 사업이 우선 진행 중이다. 중국, 뉴질랜드와 호주는 구체적인 모습을 갖춰가는 프로젝트이다. 지금까지 쌓인 시설 및 교육관련 프로그램 등의 기술을 이전하고 있으며, 중국, 폴란드, 미국은 기본계획 및 조성단계까지 진전된 상태이며 나머지 15개 국가와 기술이전, 자문 등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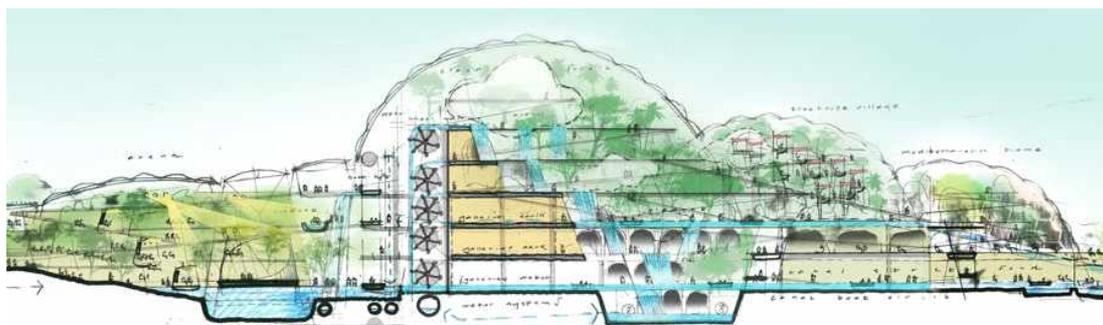
시설 건설 자체보다 전시대상을 선정하고 유연성 있는 구성, 스토리텔링과 교육이 중심이 되며, 이든 인터내셔널 자체에 건축, 시설, 조경, 연구 및 시나리오 작가가 팀을 이루고 있다. 아울러 2020년 두바이 엑스포에 전시공간을 준비하고 있다.

(1) 중국

중국에는 3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Quingdao, Yan'an, Beijing 지역이다. 중국 칭다오의 이든 프로젝트는 물과 지구에서의 삶의 중요성을 테마로 하고 있다. 시설자체는 중국에 건설되지만, 해외의 다른 이든 프로젝트와 상호 관계를 갖고 다른 이든 센터들과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공유할 예정이다. 2017년에 공사에 들어간 칭다오는 중국 프로젝트 중 가장 많은 진전을 이룬 상태이다.

Yan'an은 두 번째 중국 프로젝트로 만리장성으로 유명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이든 프로젝트는 땅과 흙, 지구의 생명에 대한 주제로 접근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생태적 복원의 쇼케이스가 될 것이다. 도시 외곽부의 훼손된 지역을 꽃이 피고 농사를 짓고 교육이 있는 공간으로 복원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Beijing의 SHeng Lu Vineyard에 건설될 예정이다. 자연환경에서 어린이와 어른들을 위한 놀이장소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원예와 조경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그림 42> Quingdao 이튼 프로젝트 구상도



<그림 43> Yanan 이튼 프로젝트 기본계획도

(2) 호주

Macquarie point Development Corporation의 요청으로 hobart지역 항구 주변 15헥타르 면적에 대해 환경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지를 조사하는 일을 같이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Hobart지역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오염되고 버려진 땅을 변화시키는 일 자체가 이튼의 기조와 맞는 일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확신을 갖고 진행 중이다.

(3) 뉴질랜드

크리스트처치에서 사회적 기업을 위한 개발 계획과 지진으로 피해를 본 Red Zone 지역을 매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트러스트와 함께 일하고 있다. 이곳의 이튼은 자연과 문화를 탐사하고 River Avon의 해안을

따라 생태복원 컨셉을 포함하고 있고 지금은 초기 단계이다. 이것은 지역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생태관광을 위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4) 영국

Northern Ireland와 Eden Project North라는 형태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북부 아일랜드는 Derry 지역 파트너들과 일하고 있으며, Foyle 강둑을 따라 역사 경관지역을 국제적으로 중요한 관광사이트로 바꾸는 계획이다. 역사 경관과 월가든을, 배우고, 격려하고, 탐험하고 놀이하는 해설이 있는 장소로 만들고 일반인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계획이 추진중이다. 특히 지역 주민을 그들의 공간과 역사에 연결시키고 관광객을 유도하여 경제적 성장과 번영을 추구하고자 한다.

Eden Project North는 실내체험과 실외체험을 이어주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Morecambe Bay의 자연환경을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여기에는 콘월의 이든 프로젝트 열대와 지중해관을 설계한 Grimshaw가 함께 한다. 이 일은 Lancashire Enterprise Partnership, Lancashire County Council, Lancaster University, Lancaster City Council이 참여하고 있다.

(5) 미국

캘리포니아 자이언트 삼나무 군락지역에 자연학교를 만들기 위해 550헥타의 민간소유 세콰이어 숲(살아있는 나무 중 가장 오래되고 큰 나무 3그루를 포함하여)인 Lost Grove를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곳은 과학과 문화가 함께 있는 곳으로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하고 가르치는 영감을 주는 곳으로 계획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이 미래를 위해 숲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의 시급성을 알도록 교육하는 나무학교와 연구소, 예술과 문화, 소통의 플랫폼 그리고 글로벌주얼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글로벌 주얼 프로그램은 이든 해외 네트워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6. 정원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가. 정원문화 프로그램

이든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문화콘텐츠에는 교육 및 해설기능, 지역사회 및 전국단위 공동체 프로젝트이다. 실제로 이든 프로젝트의 인프라는 늘 변화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식물원과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지만, 식물자원의 보전, 생태계 복원 등의 맥락에서는 영국을 포함한 세계 어떤 식물원과 견줄만한 눈에 띄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정원문화 콘텐츠의 개발은 생명과학부의 활동만이 아니라 지역의 대학과 연계한 식물연구 및 지역 생태계 보존 활동, 기존 전시원을 활용한 장기 모니터링 공동연구, 자체적인 학위과정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다.

(1) Biome 내 식물별 스토리텔링 사례

팜 야자나무는 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식물이며, 주로 플랜테이션 재배를 통해 대량 재배되고 있다.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로 각광을 받는 팜유생산을 위해 플랜테이션 재배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열대식생이 파괴되고 단일 종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결국 열대우림의 종 다양성이 훼손되는 딜레마¹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는 팜유가 포함된 일체의 식료품 구매를 중단하고 교육과 해설을 통해 같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커피는 원산지과 구매지 간의 직접거래가 아닌 런던과 뉴욕의 선물시장 거래방식으로 대부분의 생두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대부분의 커피 값은 생산자가 아닌 선진국에 있는 중간거래자가 이익을 취하게 된다. 새로운 커피생산국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장을 만들고 이로 인해 열대 우림

10) 지역과 아마존 지역에서의 열대 우림 파괴가 문제시 되었으나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아시아 국가의 식생파괴와 플랜테이션이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의 파괴가 가속화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커피 재배방식은 주변 식생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지지만, 플랜테이션은 주변 식생을 제거하고 단일종만을 재배하게 되는 환경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든 프로젝트는 관람객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생산자에게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공정거래 커피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바나나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과일이다. 영국에서도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작물의 플랜테이션 재배와 세계적 차원의 과일 유통을 설명해 줌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동남아시아와 서태평양 원산의 바나나는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과일이며 전 세계에 공급되는 바나나의 상당 부분은 중앙아메리카의 대규모 플랜테이션에서 재배된 뒤 다국적 자본에 의해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플랜테이션으로 인해 원시 열대림이 훼손되고 세계적인 자유무역 결과로 환경파괴가 가속되고 이런 과정에서 농민은 피해를 당하고 환경은 파괴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플랜테이션의 특성을 공장 생산시설과 비교하기 위해서 컨베이어 벨트방식의 전시시설을 설치하여 관람객이 직접 이러한 설명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계적 차원의 더불어 신자유주의 무역과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이 미치는 부정적인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사탕수수는 노동집약적으로 이뤄지는 재배 특성 때문에 막대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예노동의 도입과 이로 인한 인구의 강제 이동까지 이곳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탕수수의 자원적인 측면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바이오연료의 사용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 않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석유자원 고갈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바이오 연료 사용은 필수적이지만,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연료용 작물의 재배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은 식량작물의 생산면적을 출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현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있다.

이렇듯 흔히 볼 수 있는 유용식물의 과학적 정보 중심의 식물해설이 아니라 식물과 사람간의 관계, 그것이 미치는 사회, 경제적 파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교육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스토리로 풀어냄으로써, 전시원의 기능이 단순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닌 교육과 체험의 공간으로 전시팀, 환경해설팀과 교육팀의 협업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생태, 인문, 사회, 과학 관련 전문가 강의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열대지역의 작물재배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이해를 돕고 있다.

열대작물을 이용한 전시에서는 해당 작물에 대한 설명과 재배지역 및 환경과 같은 자연지리적인 지식을 제공하며, 환경적 측면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제시함으로써 교육과 해설에 활용되고 있다. 식물을 사회경제적인 맥락에서 관람객과 이야기하고 의견을 도출하기도 하며, 궁극적으로 방문객 행동양식의 변화를 이끌고자 한다.

(2) 교육 프로그램

교육 자선기관(Education Charity)으로 다양한 계층과 내용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다. 영국의 STEM 교육체계를 고려하여 학교 선생님 그룹과 관련 단체와 매년 워크숍과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자연과 환경, 기후변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교재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학교의 커리큘럼과 자체 수행된 연구결과를 연계하여 학생은 물론 교사 및 해설가를 위한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많은 호응을 받기도 한다. 조직 내 해설팀과 교육팀은 엄밀히 분리되어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때 진행된다. 식물,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관련된 과학적인 이론 교육과 열대 및 지중해 바이옴에서 배운 것을 찾아보고 확인하는 체험교육이 병행되어 영국 전역의 학교에서 인기 있는 수업이다. 교육에 활용되는 자료는 모두 무료로 웹상에서 공유하고 있으며, 엑시터 대학 등 연구 교류가 진행 중인 학계의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등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된다.



<그림 44> 사전협의



<그림 45> Going to Extremes



<그림 46> Business in Eden



<그림 47> Forest Ranger

초등학생을 위한 「Primary School 2018-2019」 프로그램은 영국 학교 커리큘럼에 맞추어 EYFS and Key Stage 1(year1~2)/ Key Stage 2(Year 3~6)로 운영된다. 중학생을 위한 「Secondary School」 프로그램은 Key Stage 3~5까지 운영하면서 과학 등 7과목(과학, 지리학과 지속가능성, 수학, 예술, 여가&여행, 지역방문, 체육활동과 모험)으로 구성되고 Workshop과 Lab practical등으로 운영한다.

전체 교육 프로그램은 67개 세션이 다른 주제와 다른 해설 내용을 가지고 전문팀에 의해 기획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과 해설을 위한 안내판은 주제한줄 - 부연설명 - 그림으로 구성하여 흥미를 이끌 수 있도록 제작한다. 그림만으로도 충분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함과 동시에 시선을 이끄는 방식으로 관심을 유도한다.

교육팀에서는 방문객들이 스토리텔링 후에 생물다양성에 대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는가, 얼마나 만족하고 그것이 내부의 기념품 판매전에서의 (팝업가든 7개, 기프트샵 2개)구매와 이어지는가를 측정하는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아이들의 방학시즌에 기획된 Summer kids school program은 아이들 뿐 아니라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으로 인기있는 여름방학 교육프로그램이다.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생존법을 가족이 함께 체험해 봄으로써, 자연에서 만날 수 있는 재료들을 설명한다. 콘월지역은 7월 중순부터 9월초까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영국 최고의 휴양지이기 때문에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 방문객의 참여도 상당수 차지한다.



<그림 48> STEM 교육교재 박람회



<그림 49> STEM 교육 컨퍼런스

교육진행자는 전체 교육프로그램을 모두 숙지하고 있으며, 같은 날 모든 교사가 같은 수업을 하기도 한다. 2018년 STEM 교육 분야의 우수기관으로 뽑히기도 했다.

나. 사회적 공헌 활동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중 일부는 사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익적 성격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DeepRootsFreshShoot」이다. 지역사회의 맞벌이하는 사람들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할머니, 할아버지와 그들이 돌보는 아이들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참여프로그램과 모니터링 연구로 구분된다.

할머니, 할아버지(Grandparent)와 자란 아이들이 사회적 소통능력이 더 좋으나, 신체적 관리가 안 되는 단점을 갖는다는 연구 결과 도출(Eden project, 2018)한 바 있다.



<그림 50> DRFS 교육 프로그램



<그림 51> DRFS 음악 프로그램



<그림 52> Eden Nursery(예정)



<그림 53> Wild Camp

7. 식물원으로서의 연구 활동

이든 프로젝트 연구자들은 엑시터 대학과 폴리머스 대학, 서부잉글랜드 대학(브리스톨)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 각 대학의 석사 및 박사과정을 이든 프로젝트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고 주로 열대우림 바이옴은 열대우림에 대한 연구와, 토양, 복원생태학, 열대작물에 대한 다양성 프로젝트형 연구 지원을 하고 있다. 쓰레기 매립지의 토양 복원에 대한 시험 사이트로서 연구결과는 지속적인 정원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과학자들과 원예 전문가들의 정보교류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Eden project Learning에서 자체적으로 학부수준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과 학위과정 연계를 통한 수준 높은 세미나와 실습 여건을 갖추고 있고, 연구결과와 정보에 근거한 정원관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한다. 이런 정보교류의 과정을 통해 과학자와 정원관리자, 교육개발자와 관람객의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학부과정은 Eden Project만의 학습 환경에서 Cornwall College의 전문 강사가 가르치고 있으며 Plymouth University에서 학위를 수여한다.

MSc Land and Ecological Restoration 과정은 훼손된 부지와 생태계를 복원하는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정이다. 복원 우선 순위 파악, 이해 관계자 참여, 복원 프로그램 계획, 구현 및 모니터링, 활동 성공 평가 및 사후관리 방법을 배운다. 영국 및 해외에서의 복원 활동을 이끌고 기여하는데 필요한 프로젝트 관리 및 취업 역량과 함께 실용적인 기법을 충분히 배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든 프로젝트의 중국 내 새 사이트 인 이든 청도 (Eden Qingdao)와 같은 이든 프로젝트의 국제 개발 사이트 중 하나를 방문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다. 매립지 및 환경적으로 손상된 토지의 현장 조사, 평가 및 복원에 기여하고 새로운 명소를 개발할 때 이든의 기술을 적용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과정 역시 폴리머스 대학에서 학위가 수여된다.

Anglia Ruskin University의 석사과정은 지속가능성의 확장과 긍정적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갖추는 과정이다. 온라인 학습, Anglia Ruskin의 Global Sustainability

Institute의 연구원 참여, Eden Project의 워크샵 및 현장실습을 통해 MSc는 학생들에게 지속 가능성의 다양한 측면을 배우고 경험하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림 54> Landscape Design(BSc)



<그림 55> Plant Science(BSc)



<그림 56> Anglia Ruskin Univ. MSc



<그림 57> 자격증 과정

8 지역사회에 기반 한 정원문화 활동

첫 10년간의 이든 프로젝트 효과는 지역경제에 1백만 파운드 이상의 부가가치 효과 유발하였다. 13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47%가 콘월을 휴양하기 위한 장소로 선택한 이유를 이든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시기별로 방문객에 맞춰진 것이지만, 실제로 이든이 하는 전국 단위의 문화 활동은 그보다 광범위하다.

Eden community와 Eden connection은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 정원에서 발전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노하우로 정원문화 확장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이것은 영국 정원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 중의 하나이다. 개인과 지역공동체의 결속과 화합을 유도하고 사회·문화적인 문제해결을 실천하는 정원문화 프로그램들의 사례와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든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콘월지역의 농업, 관광업 등 지역의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훼손된 자연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보여주는 통계가 제시되고 있다.

가. Eden project의 기술, 운영 경쟁력에 기반 한 정원문화 콘텐츠

(1) Hothouse programme

Hothouse program은 이든 프로젝트의 창의적인 리더십과 지역 주민, 지역 사회, 지역의 회사와 함께 일하는 문화적 변화를 위해 구상된 정기적인 프로그램이며, 조직들이 영감을 주고 이끌어 주며, 변혁적 변화를 조율한다. 프로그램은 전문 큐레이터와 퍼실리테이터가 참석하고, 외부강사와 워크숍 리더들이 참석한다.

가) Hothouse Consultancy와 Custom Programs

사람들이 자연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영감을 주고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가이드 하고 있다.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 시리즈와 함께 개인

과 조직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도록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고 지원하고 있다. 단 한 번의 워크샵에서 회사로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수요자의 조직을 위해 맞춤형 코칭과 고객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진행하고 있다.

나) Consultancy and advisory

수요자의 조직원들이 자연과 다른 사람들이 연계되는 일에 깊은 관심이 있다면, Hothouse taem은 자문을 해주기도 한다. 프로그램을 위해 선발된 다학제간(multi disciplinary) 퍼실리테이터들과 컨설턴트들이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의도적으로 문화적 변화, 코칭과 멘토링, 훈련프로그램 디자인, 지속가능한 리더십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컨퍼런스를 위한 키노트가 가능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돕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컨퍼런스와 워크샵, 팀빌딩 세션, 회사 업무일정을 조절해서 기존의 자문 프로그램이 분야가 맞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이든 프로젝트와 외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다) Custom programmes tailor-made for your organization

교육대상에 맞는 적합한 교육과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디자인을 위해 요청기관의 팀, 조직과 함께 일한다. 일일 팀빌딩 워크샵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며, 사안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워크샵과 업무일정을 제안한다.

주요 프로그램 주제는 식물과 관련된 업무가 아닌 조직문화와 목적(의도), 팀빌딩과 소통, 리더십과 재능개발, 비전과 수평적 스캐닝, 지속가능한 리더십으로 넓은 영역에서의 정원문화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전문가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이라기보다는 문제에 대한 공감과 소통으로 조직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과 목표달성을 위해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에 함께 접근하고 해결점을 찾아내는 것을 자연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그림 58> Hothouse 리더십 프로그램



<그림 59> Hothouse 리더십 프로그램



<그림 60> Hothouse 지역 리더십 프로그램



<그림 61> HotHouse 여성리더십 프로그램

□ 사례연구 1 : 유기농 티 회사 Pukka Herbs

HotHouse팀은 2018년에 hothouse는 Pukka Herbs의 유기농티와 재고 목록을 가지고 일해 왔다. 푸카 창립자들과 HR팀의 컨설턴트 단계와 공동창작의 기간 후에 'Chrysalis'가 태어났다. 그 자체 이름으로 변혁적 변화와 강력한 비유를 가진 Chrysalis는 개인과 조직을 위한 개발 프로그램이며, 푸카의 모든 직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작업은 현재(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이다.

□ 사례연구 2 : Ella's Kitchen

Ella's kitchen 내 리더십 팀과 조직의 목적을 조사하고, 더 나은 음식을 먹을 기회를 가져야 하며, 동시에 건강한 음식을 발견하는 것은 즐겁고 맛있고 기분은 일이어야 한다는 기업의 경영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기업이 가진 특별함을 찾아내고 직원들과 옳은 일을 하면서 이윤을 만드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상업적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2) Eden Connection

이든 커넥션은 내부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리더쉽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Eden learning team과 HR팀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Hothouse는 창의적인 리더쉽 개발 프로그램으로 전직원과 외부 공간을 활용하여 자연 안에서 파워풀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 이든 커넥션 프로그램에 Hot House 접근방법을 차용하여 새로운 팀멤버의 적응을 위해 런칭되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이든의 중요한 주제인 변형, 연결, 공통성을 강조하여 참가자와 이든의 윤리, 미션, 목적을 연결하고 각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탐사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것은 이든의 팀원들이 흥미로운 개발요소들을 가지고 조직의 목표를 탐사하고 달성하는 중요한 시간이며, 각자의 업무영역 뿐 아니라 Eden Development Fund와 같은 조직 전반의 업무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일 코스 프로그램이며, 첫날 늦은 저녁에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Snooze 박스에서 머물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를 갖는다.

프로그램의 중요한 의미는, 일상의 역할과 삶으로부터 떠나는 시간을 만들어 상황을 다른 각도로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3) Eden Community

지역사회와 연계, 지역에 산재하는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및 고령화와 관련된 지원에 관한 일은 이든 커뮤니티(Eden community)가 진행하고 있다. 이든 프로젝트와 연결된 커뮤니티와 결과적으로 관계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콘월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네트워크에서 영국 전역의 지역공동체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든 커뮤니티가 의미하는 실천적 행동은 소통의 개념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된다. 지역의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누구 옆에 사는가를 아는 것, 인사를 하고 웃고 가끔 이야기하는 것을 중단하고 손을 흔드는 것을 의미한다는 명제를 전제한다. 지역주민들 간의 간극을 좁히고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키워주는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소소한 소통은 커피설탕을 이웃에서 빌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각자의 정원에서 같이 놀거나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을 당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웃한 공동체는 서로 알고 지내는 지역주민이다. 지역공동체의 결속은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서로를 돕게 되고, 연결된 공동체는 그들과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문제인 골치 아픈 이슈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나서게 된다. 각 지역의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외로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pup catch ups」도 주마다 운영하는 커뮤니티도 있는가 하면 아이들을 위한 공동체 정원을 운영하고 채소 기르는 법을 배우면서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해서 가르친다.

어떤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상업 공간의 한 부분을 편안한 공유 공간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고 요가나 명상 같은 새로운 것을 하도록 도와주고 개인적인 개발을 돕는다. 지역공동체의 운영은 탄력적이다. 어려운 시기에 부딪힐 때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때로는 글로벌 이슈에 맞서기 위한 준비하며, 결국 커뮤니티 내에서 연결을 시작하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을 지원한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의 배경은 이든 프로젝트의 태생적인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든 프로젝트가 사람, 사람과 사람, 지역공동체와 관계에 변형과 희망을 자연 안에서 해답을 찾고 누리는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빅런치(Big Lunch) 프로그램이다. 2009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과 6월 일요일 하루, 점심을 같이하며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단초가 되었다. 첫 번째 이벤트 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10배나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에는 「Big Lunch Extras」를 만들었고 이 사람들은 이든 프로젝트에서 운영하는 Community Camp 이벤트를 함께 했다. 이야기, 워크샵, 활동, 아이디어, 자원(resources)과 함께 그리고 많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하여 캠프에 참가한다.

이든 커뮤니티는 이제 영국전역을 거쳐서 공동체 네트워크를 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넘어서 영국 내 빅런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

는 사람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들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긍정적인 차별성을 만드는 것을 돕는다. 2017년에는 9.3백만의 사람들이 빅런치 프로그램에 참가했고,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든 프로젝트의 Community Camps에 참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커뮤니티에 힘들 실어 주는 것, 사람들의 행복과 잘 사는 것의 증가는 하는 것을 중요한 결과로 여기고 있다. 이벤트, 경험과 네트워크, 매일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을 격려하면서 사람들을 연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62> 이든 커뮤니티의 워크숍



<그림 63> 자원봉사자 교육

가) The Big Lunch

일 년에 한번, 주변 이웃들과 점심을 하는 행사로 이든에서 시작해서 영국 전국으로 퍼진 커뮤니티 행사이다. 이벤트의 시작은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든 프로젝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었고, 빅런치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벤트는 매년 6월의 어느 한 일요일에 수백 만명의 사람들이 거리에, 공원에, 정원에 이웃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영국의 연중행사로 자리 잡았다.

2019년에는 6월 1일과 2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영국 내 이 날의 빅런치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자료와 격려를 지원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1. 당신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웃어주라
2. 당신앞에 누군가 버스, 지하철, 기차를 타게 하라
3. 꽃, 과일, 야채, 나무를 심어라
4. 잠시 동안 당신과 말하지 않았던 사람과 통화해라
5. 손 편지나 엽서를 보내라
6.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
7. 당신이 찾은 재미있는 것을 공유해라 그들이 너를 크게 웃게 할 것이다.
8.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보내라
9. 고맙다고 말하고 그것을 의도하라
10. 누군가의 집이나 쇼핑한 것을 들어줘라
11. 아이봐 주기를 해봐라
12. 쓰레기통을 치움으로써 공공공간을 단장해라

Big Lunch는 3명 또는 300명이 될 수도 있으나 이웃과 점심을 나누는 간단한 행동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낸다. 2017년에 9.3million의 사람들이 영국 내 90,000개의 이벤트와 함께 열린 빅런치에 참여했다.

이것을 통해 도출된 결과¹¹⁾는 다음과 같다.

- 94%의 사람들이 빅런치가 그들의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이라 믿는다.
- 88%의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곳을 더 좋은 곳으로 느끼게 된다.
- 94%의 커뮤니티 캠프 참가자는 그들의 동네에서 Big Lunch와 다른 커뮤니티 활동을 실행하는 행동을 취하러 간다.
- 90%는 The Big lunch는 다른 세대와 함께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11) 커뮤니티는 사람들의 삶과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함께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강력하네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국의 모든 지역에 일반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일이라 의미하고 있다. 개개인의 행복이 연결된 커뮤니티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진행 중이다.

작은 시작, 큰 변화(Small Step and Big Difference)

당신은 들어본 적이 있는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 어린아이 걸음마 또는 한 번에 한 걸음, 한입크기 사이즈로 세분화하라. 우리는 담배를 끊고 다이어트를 하고 공부를 하고 습관을 만들거나 깨기도 하는 사람은 한 번에 하루가 걸린다는 것을 안다. 종종 우리가 전체 문제를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활동부족으로 경직되어 있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의 100파운드는 a penny와 무슨 차이를 가질 것인가?

다른 누구도 웃지 않을 때 나의 미소는 무슨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이 잘려 나갈 때 나무 하나는 무슨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만약 모든 영국 사람이 주전자 안에 1페니를 넣는다면 우리는 64million페니를 가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웃는다면 64million의 미소를 가지게 된다. 만약 모든 사람이 나무 하나를 심는다면 64million개의 나무가 생길 것이다.

작은 몸짓과 작은 내딛음은 거대한 하나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즐거움, 작은 기쁨, 작은 친절함, 미소와 웃음을 나누거나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 또는 칭찬이 우리 모두를 세계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게 한다. 비록 그것이 작은 변화일지라도 작고, 일반적이지만 아름다운 상호활동 또는 연결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 만약 64million사람 모두가 작은 일을 매일 함께 한다면 놀라울 수 있다.

<표 >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위한 작은 실천

작은 스텝으로 시작한 The Big Lunch는 이웃과 함께하는 영국의 가장 큰 연중 행사이다. 그것은 단순한 아이디어이지만 대단히 즐거운 시간이고, 차들은 멈추고 서로 어색함도 없이 이웃들은 함께 거리에 나와 만나고 인사하고 서로의 것을 나누고 계획을 세우며 커뮤니티와 몇 시간 동안 우정과 즐거움 속에서 어울리는 기회를 갖는다.



<그림 64> The Big lunch 준비과정



<그림 65> The Big lunch in Hove

나) The Big walk

The Big Lunch와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는 문화 콘텐츠로 The Big Walk가 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동기부여와 지역의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커뮤니티가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셋업하는 것을 돕고 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외출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4개의 걷기 팀이 영국 전역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함께하고 산책하러 나가는 것으로 The Big Walk는 시작된다. 참가자들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우정으로 발전시키거나, 더불어 커뮤니티를 특별하게 만드는 놀라운 프로젝트나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

[The Big Walk를 위한 커뮤니티 지시사항]

Step 1. 걷기 할 사람을 초대하라

당신의 이웃을 잠시 방문하거나 당신의 계획한 커뮤니티 그룹을 걷기에 함께 하도록 초대하라. 이 내용을 지역 소셜 미디어 그룹을 통해 홍보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레저센터에 포스트를 붙임으로서 알릴 수 있다.

Step 2. 루트를 결정하라

시내주변, 공원주변, 강이나 해협 길을 루트로 정할 수 있고 경관이 좋은 길 이 될 수도 있다.

Step 3. 당신의 여행을 공유하라

당신이 정한 길의 사진을 찍고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TheBigWalk로 해시태그하라. 이든 커뮤니티의 걷기 전문가들이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Step 4. 몇 가지 영감을 주는 것을 찾아봐라

경관 뒤에 숨겨진, 놀라운 무언가를 발견하고 이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Step 5. 축하하라

새롭게 만나 친구와 연락하고 The Big lunch를 개최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라. 당신의 다음 걷기 장소를 의논하기 위해 빅런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다) Community camp

커뮤니티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Eden project의 Community Camp는 영국 내 모든 선도적인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이것은 이든 커뮤니티가 하는 다양한 일을 지원해주는 워크샵으로 전국의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지역 공동체가 만든 소중한 네트워크를 위한 허브가 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일 년에 두 번 캠프를 진행한다.

이든 프로젝트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실습과정과 워크숍, 네트워킹 기회를 누린다. 캠프는 영국 내에서 커뮤니티를 처음으로 시작하고 싶거나, 다음 레벨의 커뮤니티 운영을 위해서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들, 이제 막 커뮤니티를 기획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고 있으며, 커뮤니티 형성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스, 지원, 영감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한 기능이다. 2018년에는 2개의 캠프가 있었다(28 September -1 October, 9-12 November).

캠프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맞춤형 워크샵 : 참여자의 경험에 맞춘 다른 주제를 메뉴에서 선택하라. 이것은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하기, 그 린스페이스에 활기를 찾기 위한 방법 같은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 실습활동 : 당신의 이웃과 함께 교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제공하는 기호에 맞는 세션을 선택한다.
- 네트워킹 :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는 워크샵 또는 차를 마시는 기회를 통해 새롭고 유용한 관계를 만들고 사물을 보는 다른 시각을 가지게 한다.
- 실습자료 : 참가자가 자기들의 커뮤니티로 돌아갈 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료를 가지고 갈 수 있다.
- 사회적 활동 : 식사를 하면서 같은 처지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자유시간 동안 참가자들은 이든 프로젝트의 모든 곳을 돌아볼 수 있다.
- 숙박 : 참가자들은 YHA에서 제공하는 스누즈 박스에서 머물 수 있다.
- 맛있는 음식 : 당신이 머무르는 동안 모든 식사가 제공된다.

지금까지 커뮤니티 캠프에 참가한 사람들의 94%는 캠프 참가를 통해서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무언가를 더 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기금을 지원하는 이든 커뮤니티에서는 참가자의 커뮤니티가 어떻게 성공하고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체크하고 있다.



<그림 66> The Big Walk



<그림 67> The Big Walk



<그림 68> 이든 캠프 컨퍼런스



<그림 69> 이든캠프 전문가 강의



<그림 70> 이든캠프에 참가한 커뮤니티 네트워크

나. 가드닝 기술에 기반 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정원문화 콘텐츠

(1) Eden on Prescriptions

2016년에 영국 보건부(The department of Health)는 예산의 2/3이 정신 건강서비스와 같은 부가적인 케어서비스와 Type 2 당뇨병, 심혈관질환, 만성폐쇄성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과 같은 상황을 관리하는데 지출되었다.

영국은 국민의 우울증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담당부처가 개설되고 병원에서는 Green prescription을 공식적인 처방으로 인정하고 있다. 보통 원예치료는 치료사(Therapist)가 진행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원예전문가(Horticulturist)가 전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치료를 위한 원예활동(Therapeutic Horticulture)을 강조하고 있다. 매년 결과에 대한 에피소드를 정리하여 공유하고 프로그램 운영 효과가 확인되지만, 전반적인 과정에서의 확인이 어려운 것은 병원처방과 관련된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치료과정과 방법을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까지 이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은 정부지원 없이 이든 프로젝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시범운영을 통해 가드닝활동과 소통의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적 효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를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부지를 확대하고, 시설을 확충하여 고정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든 프로젝트의 잘 꾸며진 식물원과 기술은 의료기관의 사회적 처방을 통해 정신 건강부터 당뇨병에 이르기까지 치료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연환경에서 사회적 경험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건강하게 잘사는 것을 돕는다는 것이 여기에서 「사회적 처방」이 가능한 이유라고 한다. St Austell Healthcare의 주 병원으로부터 3마일 떨어진 이든 프로젝트 (Eden Project)는 St Austell 건강 관리의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에 등록된 환자들에게 지원과 격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처방이란 영국의 병

원(GPS)들이 지역 범위에서, 운동 프로그램, 소셜 클럽과 자연활동 등 논클리닉서비스(non clinic Services)를 위하여 의학적, 사회적, 감정적 또는 실용적 요구를 처방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약을 처방하거나 병원을 제공한다.

결국, 활동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들의 새로운 관계형성을 돕고 활동 수위를 높이거나 만들어내는 것,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다. 사회적 처방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건강과 잘 사는 것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제공하고 자신을 위한 활동할 것들을 찾아주는 처방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있다.

WHAT IS SOCIAL PRESCRIBING?
Social prescribing enables GPs to refer patients with medical, social, emotional or practical needs to a range of local, non-clinical services such as exercise programmes, social clubs and nature-based activities.
At the Eden Project we believe that being in and around the natural environment, and giving people social shared experiences, provides us with the tools to improve our health and wellbeing. That's why we run regular weekly activities on our site for people with long term health conditions.
WWW.EDENPROJECT.COM/SOCIALPRESCRIBING

10 INSPIRATIONAL STORIES
FROM THE EDEN PROJECT'S SOCIAL PRESCRIBING PROGRAMME
DELIVERED IN PARTNERSHIP WITH ST JUSTELL HEALTHCARE

JOHN
Started with the Social Prescribing Programme in February 2017.
My father had been a diabetic and when I was young I had been heavily involved with it, but he was a hardworking man and he made me look for a job to do and put food on the table. My diabetes was not a problem and I remember as a child being told that doctor when he was found unconscious. He later developed a heart condition and suffered a stroke. My father was a diabetic and I was her sufferer a premature death in her 50s from a heart attack. My mother was also diagnosed as diabetic in her 60s. My father always was the strictest disciplinarian.
I am now 73 years old. I find it hard to pinpoint a start date for my diabetes, but it has been 10 years since I had a scan going on with my health and to my personal life and I remember being aware that I had diabetes and needing to change. After some diagnosis, I did what the doctor said and began to eat. I did not appreciate the severity of diabetes or how important diet was.
WHAT DID YOU DO?
St Justell Healthcare's Social Prescribing navigators helped me to find a diet and healthy living group at the Eden Project. I joined the Active over-65 exercise classes and I have learned a considerable amount about diet and healthy eating and a lot about my weight. I also started walking with the diabetic walking group at the Eden Project. I look like the fact that there is a weekly walking group to look at Eden and it feels like a safe place to walk. The staff are friendly and know how to make sure the walking group is manageable for my condition. It is the best thing that has happened to me since joining the program. I like to be outside. I always have done. It felt like I had finally escaped from the indoors in the house and walk to the shops each day to get the paper - one mile each way in addition to the weekly walking group at Eden.
WHAT WOULD YOU SAY TO OTHERS?
I would say to anyone diagnosed as a diabetic, get help and support, listen to what you are told, understand what your condition is and know your limitations. What is something that clients do for me - I never realised that I could change my diabetic diagnosis but do now. My journey continues.

STEVE
Started with the Social Prescribing Programme in August 2016.
Fifteen years ago I started noticing that I was going to the toilet a lot along with other pointers towards diabetes. When I had my blood sugar tested I was told I had diabetes, my GP advised me to see a dietician and I remember as a child being told that I had almost been expecting it because three of four members of my family had had diabetes. It became quite serious for three and a couple of them had lost limbs. It was with some trepidation that I had my blood sugar tested. I initially kept having three times a day and it was a relief to avoid going into hospital.
WHAT DID YOU DO?
I had been grossly overweight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although I was quite active and I knew the weight wasn't helping, I didn't realise my diet for eating foods with a low glycemic index, and tried to cut out carbohydrates. I found that I felt a lot better with a much more healthy diet. I started including my own produce in my diet. I had the help of the Eden Project and others in the local area when I had my first 400 calorie offer for low weight. I managed to drop my weight with the help of the Eden Project and others in the local area when I had my first 400 calorie offer for low weight. I managed to drop my weight with the help of the Eden Project and others in the local area when I had my first 400 calorie offer for low weight. I managed to drop my weight with the help of the Eden Project and others in the local area when I had my first 400 calorie offer for low weight.
WHAT WOULD YOU SAY TO OTHERS?
It is extremely important to lose weight with a healthy diet and exercise. The effects of diabetes can be very serious, so it is important to take the right steps. I have been very lucky in that I have been able to lose weight and I am happy to say that I am heading in the right direction.

<그림 71> Eden on prescription 운영 모니터링 결과 및 신체적 효과

가) Walking Group

첫 번째 사회적 처방으로 당뇨병 치유를 위한 Walking group을 만들어 운영했다. 참가자의 걷기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 이든 프로젝트 내 전체 지역을 걷는 처방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COPD(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만성 폐쇄성 폐 질환) 워킹 그룹의 성공에 힘 입어 현재 당뇨병 걷기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능력이 다른 참가자를 고려해 함께 이든 (Eden) 지역을 걸어 다닌다. 심장 건강 개선, 혈압 강하, 심혈관 상태 조절 증가 및 근력 증강 및 근력 향상과 같은 걷기의 신체적 이점과 신진 대사를 증가시키고 칼로리를 태우는 건강상 도움을 많이 주는데 이것이 주는 사회적 이익에 주목했다. 참가자들은 혼자서는 걷지 않았을 것이고 함께 걷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림 72> COPD그룹의 걷기 처방



<그림 73> 당뇨병 그룹의 걷기 처방

[사회적 처방에 대한 참가자 반응]

“그것은 나를 아침에 침대 밖으로 나와 걷게 한다. 그리고 의사가 운동처방을 했을 때는 그것은 쉽지 않지만, 실제로 그는 내가 그것을 하도록 할 수도 없다.” by David diabetes walk reader)

“나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나는 더 많은 기운을 받고 좀 더 건강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나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것은 나의 기분을 돕는다. by tracey, diabetes support network participant)

나) Eden Lunch Club

고독은 비만이나 육체적 활동 저하보다 고령층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이다. 이튼팀은 콘월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일주일 간 런치클럽을 시도해 보았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80대이며, 바깥출입을 못하는 -거동이 어렵거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거나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런 상황의 참가자들은 짧은 걷기와 이튼 카페에서 점심을 함께 하는 것으로 참여했다.

The Eden Lunch Club은 지역의 65세 이상 홀로 사는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한번 걷고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한다. 친절하게 도와주는 직원들과 훈련된 걷기전문 리더들이 운영하는 이 클럽은 참가

자들이 정기적인 운동,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 이든에서 함께 점심을 먹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걷기는 지면레벨에서 약 10분 동안 유지되면서 진행된다.

다) Horticulture therapy : Vounder garden

Eden Project는 Big Lottery와 European Social Fund가 자금을 지원하는 주 원예 치료 프로그램을 시범하기로 결정했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은 Eden Project 식물원 부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잡은 867m² 규모의 Vounder Farm이라는 오래된 농장 건물이다.

St Austell은 인구가 36,000명에 불과한 콘월 중부에 위치한 도시이다. 이 도시는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평균수를 훨씬 웃도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건강관리 제공자인 St Austell Healthcare는 이든 프로젝트와 가드닝을 통한 4가지 실습과정을 합쳐서 콘월의 최대의 사회적 처방 실천 사례를 만들었다.

2016년 6월, 환자의 건강 관리를 위한 대안 솔루션으로 가드닝 활동을 제시하고 참가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통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바운더가든(Vounder Garden)이라 부른다.

이것은 사회적 처방과 원예치료프로그램은 걱정과 우울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키우고 가드닝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지원하고 그들이 그들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도록 도와주고 있다.

Vounder Garden은 참가자들이 자연 안에서 평화를 느끼고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노력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장소이다. 갖추어야 하는 경험이나 기술이 요구되지 않으며, 숙련된 치료 원예 팀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걱정과 우울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원에서 그들의 시간을 보내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찾도록 하는 개인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돕고 있다.

주 단위로 운영되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정신 건강 문제를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든 가드너들과 이든의 식물원 안에서 원예기술을 가르쳐 준다. 참가자들은 높임베드를 만들고 버드나무 공예와 같은 많은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통해 식물관리 기술을 배우고 있다. 원예 치료

목적은 참가자의 가치에 대한 감각을 개발하고 모든 활동은 종종 정신적 질병이 있었던 있는 기간을 잊게 하고 독립심과 자신감을 증진시켜준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계획하는 능력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정원활동은 수확이라는 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것을 요리하고 먹고 하는 함께 사회에 적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콘월 (Cornwall)에 위치한 이든 프로젝트 (Eden Project)가 운영하는 과일 텃밭 원예 치료 프로그램으로 원예와 가드닝을 사용하여 불안과 우울증으로 생활하는 12명의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12개월 동안 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채소의 생산과 관상용 식물의 관리 및 유지를 포함하는 일반 원예학 실습에 초점을 맞추어 처방 참가자들은 특정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여기에는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고 자신감을 키우며,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든 프로젝트에서 12:15pm에서 4시까지 진행되며, 식물원의 원예 팀에서 근무하던 가드너가 이 프로그램의 실습을 주도한다.

세션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 자료는 12주 동안 그들의 100%가 웰빙에 대한 증가를 경험했다고 한다. GP surgery는 이것과 관계된 방문이 40%나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St Austell Healthcare의 시범 연구는 12주간 94%의 참가자가 삶의 질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했다.

“ 나를 더 좋은 장소로 오게 했다. 지금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는 좀 더 동기부여가 되었고 덜 외롭다. by 프로그램 참가자)

“ 그것은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두 다른 불평 때문입니다. 나는 실제로 부족하고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을 즐기는 무엇인가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프로그램 참가자

실제로 정원을 기반으로 하는 원예치료의 이점은 잘 증명되어 있다.

*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성(connecting with others)

정신건강의 문제는 종종 사회적 고립을 유발한다. 개인적인 증상보다는 종합적인 기술과 열망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룹 가드닝은 유익하다.

* 복원(Restoration)

녹색 공간에 노출되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수치가 떨어지게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코티솔은 기분과 기억력과 면역체계를 컨트롤 한다.

* 기술개발(Developing Skills)

이런 프로그램은 환자가 구조물을 다시 만들도록 돕고 그들 삶의 일상을 지원하도록 계획되었다. 커뮤니케이션, 조직(organization), 의사결정과 같은 유연한 삶의 기술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요구된다. 가든닝 역시 사람들에게 직업을 갖는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환자들의 체력유지를 고려한다.

*목적의식(Sense of Purpose)

의미 있는 활동에 기여하고 참여하는 것은 정신 건강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사람들이 성장하는 식물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낼 때 소유권과 자부심이 형성되어 지역 사회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룹 원예 활동뿐만 아니라 참가자들과 일대일로 시간을 보내며 미래를 위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코칭한다.

이든 프로그램 담당자는 참가자들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첫 해부터 100% 참가자 모두 프로그램의 과정에서 정신 건강이 다른 분야에서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사람들은 정원의 회복적 성격이 그들의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얻었다.

[원예적 치료 프로그램의 결과]

9 명은 더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을 강하게 느낀다고 보여주었습니다.

9 명은 정원에서의 회복적인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9 개의 새로운 원예 기술이 시연되었습니다.

6 명은 덜 고립된 느낌이 들었다고 보고했다.

5 명은 의사 소통, 조직, 의사 결정, 주도권 및 시간 관리와 같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5는 더 많은 자원 봉사 기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2 명은 일자리를 찾고 1 명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다.

2명은 더 자격을 갖추기 위해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림 74> Vounder garden 프로그램 활동 부지



<그림 75> 가드닝 기술 지원



<그림 76> 프로그램 참여

(2) 지역사회를 위한 직접적인 혜택

가) 마을 계획 세우기(Neighbourhood Planning)

이든 프로젝트는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의 Supporting Communities and Neighbourhoods in Planning scheme의 일환으로 지원된 이 프로젝트에 지역과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준비했다. 지역사회가 마을 계획에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 지역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지를 배우고, 지역주의법이 그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Planning Camps의 시리즈로 시작되었다.

이든 프로젝트가 마을계획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 살고 일하는 지역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직접 미래 비전을 찾아내도록 하여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대해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종류의 공간을 만들고 싶은지 함께 생각하는 기회를 만들고 이 과정

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 지역거주자는 자기 동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사는 곳의 계획을 세울 때에는 스스로가 지역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 과정이 재밌을 수 있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각자의 동네를 알게 될 것이다. 숨겨진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영국 역시 지역공동체간 소통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살고 있는 동네가 성장하고 변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지만, 도시계획 시스템은 변하고 사람들은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든 프로젝트는 이런 문제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 계획 세우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주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일어나는 변화가 지역공동체 내에서 다른 이웃과 함께, 참가자가 직접 일이 일어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든이 추진하고 있는 마을 계획 세우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더 나은 버스루트 갖기
- 공동체 그린스페이스나 과수원 만들기
- 지역을 위해 기준에 맞는 집 디자인하기
- 샵, 펍, 영화관과 같은 지역기업 운영하기
- 재활용품 수집과 같은 지역서비스를 당신이 직접 하기

[사례연구 1 : 마을 계획하기 Southbank Gardening 프로그램]

계획 대상지 : 런던의 Province Row Housing Association 으로부터 Southbank가 건립 된지 60년이 된 것을 기념하고자 Sun Deck 건축계획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London's Queen Elizabeth hall의 옥상 정원을 만들기 위하여 Grounded gardening team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 녹색 오아시스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 프로젝트이다.

구성 과정 : 2011년부터 3년 동안 디자이너, 이든 프로젝트의 원예전문가와 함께 예술작품들을 설치하고 채소를 심으며, 여름 몇 달 동안 멋진 경관을 유지하고 연출하였다. 이든 프로젝트의 조경가 Jane Night와 정원 디자이너 Paul Stone에 의해 디자인 된 정원은 과일나무를 심은 잔디광장, 채소플랏, 야생화지역, 허브가든을 카페와 나무가 심겨진 지역 주변으로 식재했다. 조성된 정원은 서비스 이용객, 집이 없어 고통 받고 있는 세입자, 이전 세입자 그룹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약물중독자 에밀리의 이야기 : 가드닝이 돌려놓은 인생이야기

에밀리는 7년전 길에서 진통제를(methadone)를 먹으며 헤로인과 알콜 중독으로 그녀 인생의 고통을 마비시켜가며(numbing) 살았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망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 참가를 통해 현재는 Grounded Ecotherapy에 원예선생님으로 고용되었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 소유의 렌트비를 내고 있는 믿을 수 없는 인생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식물, 허브, 채소를 기르며 그녀의 인생을 사람들과 함께 한다.

Emily Hegarty는 이든과 함께 Southbank Center의 옥상에 활력이 넘치는 옥상정원 만드는 일을 했다. 그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우울증과 싸우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공유하고 있다.

겨울날 런던의 황량한 Southbank를 지나쳐 집으로 가는 것은 왜 이든 프로젝트와 함께 옥상정원을 거기에 조성해야하는지 알게 해준다. 정원조성을 위한 자재를 손수 옮기고 식물과 식재에 필요한 통나무 박스, 비료포대들을 운반하면서 황량한 콘크리트 옥상이 정원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은 그녀 자신의 인생이 변화해 가는 과정과 같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공간을 바꾸고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 지난날 심각하게 우울한 일들로 고통 받았고, 지금은 Grounded Ecotherapy를 통한 가드닝 활동으로 정신적 건강을 회복했다. 현재, 그녀와 같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원활동 자원봉사의 일을 하고 있다.



<그림 77> Southbank 옥상정원 만들기

[사례연구 2 : 불우한 이웃과 함께 첼시플라워쇼 참여하기]

수백명의 홈리스, 불우한 이웃과 수감자들에게 첼시플라워쇼 쇼가든부분에 참여하여 수상하는 것을 목표로 이든 프로젝트의 원예전문가와 함께 일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2009년과 2010년에 영국 전체의 홈리스 에이전시로부터 백여명의 자원봉사를 지원받아 함께 일했으며, 다루기 힘든 범죄자들까지도 함께 하여 2개의 쇼가든을 만들어서 실버메달은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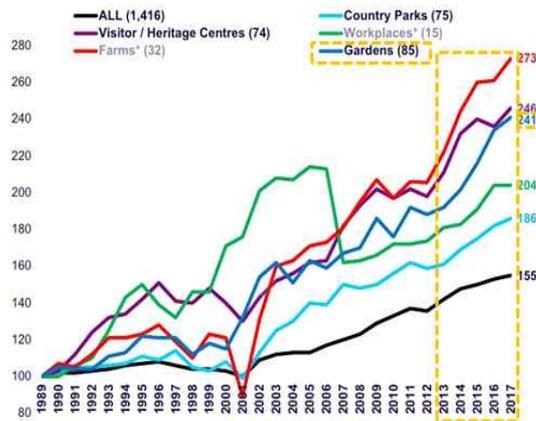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그들의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좋은 기회를 받는다면 무엇이 가능한지를 증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자원봉사자들은 프로젝트의 식재(12000여개의 식물이 각각의 정원에 심겨졌다.), 디자인, 조성을 위한 모든 레벨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서 참여하였다.

9. 정원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대

정원의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건강하게 잘 사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가시적인 경제효과가 있는 것이 정원관광이다. 이튼 프로젝트는 영국 관광명소 20개 중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Kew garden, RHS Wisely에 이어 정원으로는 3번째 순위로 방문객 수는 점진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관광명소로서 정원 방문객은 2000년대 뚜렷한 성장을 시작하며, 2013년 이후 급격히 성장세를 보이다가 2016년도 전체 관광지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 전체 관광사업의 총 세입은 평균 7%정도로 증가율을 보이나, 정원은 9%의 성장률을 나타낸다. 해외 관광객의 방문비율은 2016년 25% 증가한 반면 2017년 증가세가 6%로 크게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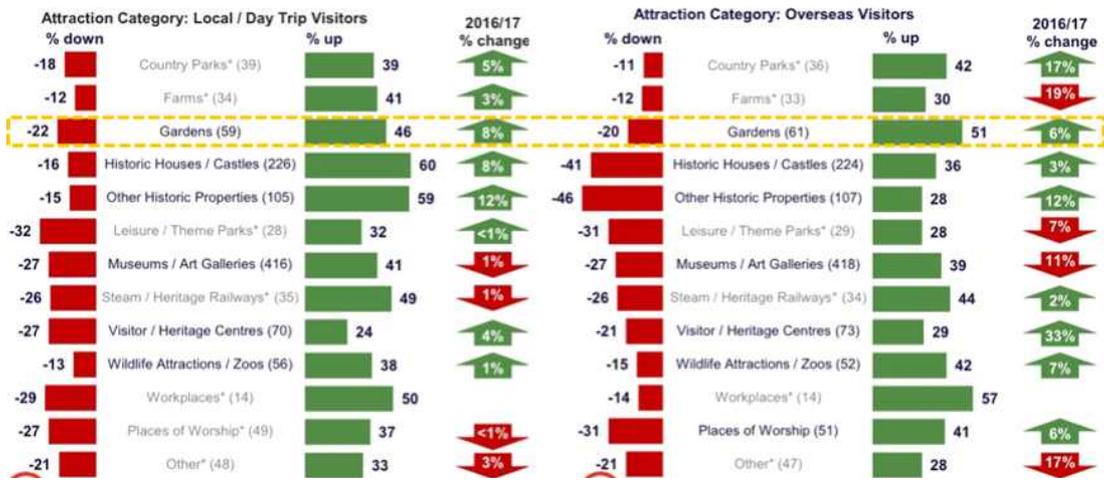
2017년 브렉시트(Brexit)와 런던 테러의 영향으로 해외 관광객의 방문이 주춤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정원관광의 꾸준한 성장은 정원(91%)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다양한 활동(Activities) 및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 하고 있기 때문이라 조사되었다. 특히, 정원이 멤버십 제도(RHS 멤버십 등)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78> 영국 정원 관광 현황



<그림 79> 영국 정원관광객 증가추이



<그림 80> 2017년 영국 내·외 정원관광객의 변화

제 5절 국내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영국은 정부와 각 식물원들이 “건강하게 잘사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원문화 콘텐츠를 통해 접근하고 있다. 기존의 정원들은 식물, 생물 과학적 연구와 보존 기능에 치중하며, 찾아오는 수요를 관리하는 운영전략이었다면, 지금은 그 간의 기술과 노하우로 지역 환경개선과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원을 소통의 매개체로 활용한다는 것이 최근 영국의 트렌드이다.

이것은 단순히 정원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 지역커뮤니티, 교도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연결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이를 통해 사회전반에 정원문화가 생활로 자리 잡고 이로 인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술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전시, 교육, 연구 및 공익성에 대한 정원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결과를 문서화하고 참여자들의 재활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정신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실버세대의 물리적인 건강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원문화가 새로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콘텐츠이다. 단순히 원예치료가 아니라 의료, 상담 및 정원기술자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형 정원문화 연구가 개발되고, 가치에 대한 평가연구가 더불어 진행 되어야 한다.

영국의 식물원네트워크인 PlantNetwork는 식물관리 기술에 대한 정보 공유와 식물원 조성 및 관리, 식물에 대한 정보제공이 과거의 주요한 네트워크 기능이었던바, 지금은 식물원, 수목원이 원예, 정원과 경관 등의 영역에서 건강하고 잘사는 것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지역공동체와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정원문화도 현재의 박람회나 쇼 등 이벤트 중심에서 탈피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공익성을 가진 문화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며, 정원 조성 이후의 활용이 반복적인 공모전이나 식물판매의 기점이었던 것을 지역주민, 국민의 건강하고 잘 사는 삶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든 역시 환경변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전시와 연계해서 진행, 수집과 보존, 연구중심의 학술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지역과 관람객의 지속적인 관심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든 콘텐츠는 식물 각각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자연과 환경 안에서 생물과 생태계의 “관계”를 이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열대생산물에 대한 공정무역의 중요성을 스토리텔링과 더불어 진행하는 것은 인상적이며, 바이옴내의 전시원 구성요소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교육 및 문화콘텐츠는 수요와 상황에 맞게 변화를 추구하며, 과학적 주제를 미디어 등 현대기술과 결합해서 선보이는 특별전시회는 지역 학교와 관람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 정책제안

이든 프로젝트의 운영의 지속성은 지역수준, 국가수준, 글로벌수준의 체계적인 소통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발전되었다. 사회적 공헌과 기관 수익 간의 균형을 적절히 조절하고, 지역사회로의 환원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콘월 뿐 아니라 영국 전체의 지지를 받는 기관이 되었다.

이든 프로젝트의 모든 전시, 교육, 연구 및 사회적 활동은 전문 홍보팀에 의해 끊임없이 외부와 공유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접한 수 있는 소셜 미디어에 간결하고 세련된 노출로 실시간 홍보되고 있으며, 간행물,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하여 정확한 타이밍에 홍보되고 있기 때문에 이든의 모든 정원문화 콘텐츠는 기관의 콘텐츠가 아니라 영국 전체가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든 프로젝트의 정원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를 사례로 다음과 같은 정책 수립을 제시해 본다.

가. 국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문화 콘텐츠 개발 및 영역확대
인프라 및 축제 중심의 콘텐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원문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원연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가든쇼나 플라워쇼 등 소모적인 정원문화 콘텐츠보다 정원활동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확장된 개념의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나.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원 정책 수립
이든 프로젝트를 비롯한 영국의 식물원들은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원은 활용되고 있다.

정원이 갖는 용이한 접근성과 정원과 연계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정원을 통해 사회, 환경 문제의 발견과 해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최근 가장 심각한 비만, 고령화, 육아와 관련 사회문제는 다양한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정원전문가, 의료계, 지자체, 지역공동체 등)의 참여가 절실하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모이게 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사회 및 환경 이슈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정원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노력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정책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다. 과학적이고 전문성 있는 정원교육 및 정원해설 프로그램 개발
변화하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정원교육 및 정원해설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성 있는 연구결과는 새로운 자원이다. 산림청 산하 1개의 국립수목원과 3개의 법인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새만금수목원(예정))의 차별화 된 연구 기능과 결과를 국내 STEAM 교육과정에 맞도록 적용·개발하여 정원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해야 한다.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지자체 식물원, 수목원, 국가정원, 지방정원 등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한다.

참고문헌

1. 정원산업 현황 조사와 전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5
2.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정원 진흥방안 연구, (사)한국전통조경학회, 2014
3. 정원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원의 제도적, 문화적 활성화 방안 연구, 신구대, 2015
4. 정원문화 확산 및 산업화 대책(안),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2015
5. 주요 연구성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015
6. 제1차 정원진흥기본계획, 산림청, 2016
7. 제3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 산림청, 2014
8. 해외 한국정원 조성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 (사)한국조경사회, 2015
9. 김종연, A study on experience facility on green growth -A case of Eden Project, U.K, 한국사진지리학회지, Vol.22 No.3, 2012
10. 박철휘,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영국의 Eden Project, 열린충남 Vol.76, 2016
11. Eden Project, Tim Smit, 2016
12. Visitor Guide Book, 2017
13. Cornwall and the Isles of Scilly Community Profiles, Cornwall Council, available at: <https://cornwall.communityinsight.org/>
14. What is Social Prescribing, The King's Fund, available at: <https://www.kingsfund.org.uk/publications/social-prescribing>
15. Buck, D, Gardens and Health,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The King's Fund, 2016
16. A Review of Nature-Based Interventions for Mental Health Care, Natural England, 9 Feb 2016, available at: www.gov.uk/natural-England
17. Schmutz, S., Lennartsson, M., Williams, S., Devereux, M., Davies, G., The Benefits of Gardening and Food Growing for Health and Wellbeing, The Garden Organic and Sustain, 2014

18. Feel Better Outside, Feel Better Inside: Ecotherapy for Mental Wellbeing, Resilience and Recovery
19. <http://www.edenproject.com/eden-story/eden-timeline>
20. VisitEngland, 2017 Most Visited 20 Paid Attractions
21. <https://www.edenprojectcommunities.com/thebiglunchhomepage>
22. 지속가능한 삶 시리즈: 커뮤니티 가든(Community Garden), 크리스천 라이프, 2011